

5일 Market Index			
<div>▲ 코스피</div> <div>4100.05</div> <div>(+71.54)</div>	<div>▲ 코스닥</div> <div>924.74</div> <div>(-5.09)</div>		
<div>▲ 금리 (미국 9년)</div> <div>2.994</div> <div>(+0.031)</div>	<div>▲ 환율 (원·달러)</div> <div>1473.30</div> <div>(-0.20)</div>		

m-커버스토리

포스트 HBM 찾아라 新 기술 경쟁 본격화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

반도체 기업들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차세대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HBM만으로는 AI 메모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AI시장이 지난해 2792억달러(약 390조원)에서 오는 2030년 1조8118억달러(약 2500조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서비스와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을 덜 소모하면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확보가 기업들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모습이다.

AI 확산 속 HBM 수요 한계 전력 효율 해법 요구 증대 GDDR·LPDDR 부상 전망 낸드 적층 HBF 개발 가속

업계에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HBM 공급 능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1월 열린 SK AI 서밋에서 “많은 기업으로부터 메모리 반도체 공급 요청을 받고 오픈AI로부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필요한 HBM을 월 90만장씩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월 90만장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의 HBM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최 회장은 많은 기업에서 메모리 공급 요청을 받고 있으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메모리 반도체 공장

증설이 진행 중이지만 수요가 급증할수록 메모리가 없어서 AI 반도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급증하는 AI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생산능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HBM 양산 전용 신규 M15X 팹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또한 향후 5년을 국내에 총 45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공조사업 생산라인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중장기 수요 확대를 예상해 평택사업장 2단지 5라인(P5) 공사도 추진 중이다.

증설과 함께 업계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확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주요 메모리기업들은 HBM 중심 증설 작업을 이어가면서도 프로세스인메모리(PIM)·컴퓨터익스프레스링크(CXL) 등 새로운 메모리 구조와 다양한 차세대 솔루션 개발을 통해 향후 급증할 수요 변화에 대비하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HBM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차세대 AI메모리 시장이 향후 전력 효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래픽 D램(GDDR), 저전력 D램(LPDDR)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학습을 끝낸 AI모델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인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HBM보다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엔비디아는 내년 하반기 출시할 추론 특화 GPU ‘루빈 CPX’에 GDDR7을 탑재할 계획이다. 또한 저전력 D램 기반 AI 서버 특화 메모리 모듈인 ‘소캠(SOCAMM)’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을 수직 적층해 만든 HBM처럼 낸드를 적층한 고대역폭낸드(HBF) 개발에도 뛰어들고 있다. 낸드의 대용량·저비용 특성을 살려 HBM 하단 계층을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전력·비용 효율성 등에 대한 고객사의 니즈가 다양화되며 내년 AI메모리 시장 경쟁은 HBM만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GDDR, LPDDR 등 효율성을 앞세운 제품군들도 함께 존재감을 키우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韓 고용률 70% 눈앞… OECD선 ‘중하위권’

핵심 노동인구 정체, 고령층 활발 비정규직 수도 21년 만에 최대치

우리나라가 역대 처음으로 국제 기준 고용률 70%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한국은 38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왔다.

7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분기별 고용률 비교에서 한국은 올해 3분기 69.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수치를 보인 2분기 때와 함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각국 일자리를 비교하고 있다.

작년 3분기와 재작년 3분기에는 각각 69.6%, 69.4%였다. 10년 전인 2015년 3분기에는 65.9%였다. 이같이 최근 10년간 국내 고용률은 코로나19 당시에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도를 달렸다.

를 달렸다.

이제 70%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70%대 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달성한다 해도 갈 길은 멀다.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이미 2023년에 70%를 넘어섰고 한국은 2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올해 고용률 80% 선을 넘기는 등 한국과의 격차를 10%포인트(p) 이상까지 벌려 냈다.

회원국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만 봐도 우리나라는 하위권이다. 올해 3분기 일본이 80.1%, 호주가 77.1% 뉴질랜드가 76.9%, 캐나다가 74.1% 미국이 71.6% 등이다.

3분기 수치 취합이 진행 중인 가운데 2분기 기준으로 OECD 평균은 70.3%였다. 한국은 38개국 중 27위에 자리하며 올해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1위는 아이슬란드도 무려 84.7%에 달

했다. 이어 네덜란드(82.3%), 스위스(80.2%), 일본(80.1%), 독일·덴마크(77.4%)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스웨덴(76.6%)을 비롯해 영국(75.3%), 아일랜드(74.6%), 오스트리아(74.4%), 리투아니아(73.9%), 포르투갈(73.6%) 등이 중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는 15~64세 비교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청년층보다 고령·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OECD가 고용률 비교를 25~54세의 핵심노동인구로 한정하면 한국은 31위까지 밀린다. 올해 2분기 기준 78.8%로 회원국 평균치인 80.2%보다 1.4%p 낮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 명 중 비정규직 수가 31.6%(257만 명)를 차지했다. 2004년 이래 21년 사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임박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임박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이날 25일 크리스마스쯤 대통령실 업무시설의 청와대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준금리 기대 꺾이자… 은행권 대출금리 반등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모두 상승 가산금리 조정으로 대출 문턱 높여

은행권 대출금리가 인상 기조로 돌아섰다.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폭이 커지면서 실제 대출금리가 지표금리보다 더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채권금리가 오르는 데다 은행별 가산금리가 더해져 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

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2~6.20%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연 4.020~6.172%)과 비교해 일주일 만에 하단이 0.10%포인트(p), 상단이 0.028%p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830~5.310%에서 연 3.830~5.507%로 상단이 일주일 만에 0.197%p 또 상승했다.

주담대 변동형 금리(신규코픽스 기준)는 연 3.840~5.865%로 같은 기간 상단은 0.015%p 떨어졌지만, 하단이 0.020%p 올랐다.

대출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우선 신용대출과 주담대 혼합형(고정)의 기준금리인 은행채 1년물과 5년물(무보증AAA)의 금리가 높아진 영향이 컸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달 28일 기준 2.815%에서 이달 5일 2.862%로 0.047%p 올랐다.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도 같은기간 3.419%에서 3.452%로 0.033%p 높아졌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은행채 5년물, 코픽스 등)와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2면에 계속〉

/나누리 기자 yul115@

메트로 한줄뉴스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민생·경제 법안 11건 국회 통과”
/사전 뉴시스
▲與 이연희 “과격파, 집권 세력 지지율 떨어뜨려 전체 위태롭게 해”

▲국힘,李 업무보고·손목시계에 “지선 겨냥 관권 선거 패키지”
▲박수현 “민주당에 ‘친명’만 있을 뿐 ‘친청’ 없다…李 정부 공동운명체”

▲국민의힘 “강제추행 혐의 피소 대변인 사의 수리”
▲보훈부, 이재명 정부 첫 4·19혁명 유공자 포상 추진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 회복… 부동산 안정정책 준비 됐다”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

내수회복, 외교안보 분야 안정 강조
가장 큰 성과로 한미 관세협상 꼽아
“지방 우대 확실하… 수도권 집중 완화”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간의 성과에 대해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나라 내수가 활력을 찾았으며, 외교·안보가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대책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훈식 실장은 그간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의 성과를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로 나눠서 설명했다. 우선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올해 1분기 -0.2%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치인 1.3%까지 급반등했다”고 했다. 이어 코스피 ▲4000포인트 달성 ▲수출 증가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

보를 그간의 성과로 제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표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다자외교를 언급하며 “정상외교를 완벽히 ‘정상화’시키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큰 성과로

꼽으며 “상호 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 과정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한미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형성됐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리농 농축과 사육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숙원이었던 사업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데 대해서는 “정책은 준비 돼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태안홀미팅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두고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도 해당 발언에 대해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풀림 현상이 너무 강해서 브레이크 거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 왔을 때 느낀 것이 그동안 착공과 공급이 줄었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도록 정책이 돼 있었다. 여러 규제도 완화됐고, 정책 금융도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다”며 “인구의 서울 집중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책이 없다, 어렵다는 느낌이었다”고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1~2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해관계도 풀어나가고 있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철강업계, 출혈경쟁 일단락… 업황 변곡점

‘K-스틸법’ 통해 감산 기반 마련 중 공급과잉 완화… 마진 개선 전망

K-스틸법 시행을 계기로 원가 하락·수요 회복·중국발 공급 압력 약화가 맞물리며 침체의 늪에 빠졌던 철강업계에 반등의 변곡점이 찾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철강업계의 구조적 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38조(공동행위 특례)는 공급 과잉 시 설비 가동률 조정과 감산 협의를 법적으로 인정해 출혈 경쟁을 완화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평가다. 제29조(철강산업의 보호 등)는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제품 유통 억제, 불공정 무역 대응 등을 통해 저가수입재를 차단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

제28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확충)도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수소환원제철·전기로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수소 인프라 확충을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

에 따라 대규모 설비투자(CAPEX) 부담을 정부와 분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특히 포스코·현대제철 등 설비투자 비중이 큰 기업에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 보호 장치 마련과 함께 원가·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개선 요인이 거론된다.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철광석 FOB(본선 인도가격) 가격이 올해 톤당 평균 87달러에서 내년 84달러선까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철강협회(WSA)는 지난 10월, 내년 글로벌 철강수요가 17억7000만t으로 올해(약 17억5000만t)보다 1% 안팎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발 공급 과잉 완화도 호재다. 중국 정부가 노후 고로 폐쇄와 감산을 지속하며 조강 생산과 철강수출이 내년부터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가 약화되면 국내 철강 가격 하락 압력이 완화돼 마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미 국내에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약 30%)

이후 중국·일본산 열연강판 수입이 급감하며 수급 정상화가 진행 중이다. 열연강판 수입량은 지난 9월 전년 대비 42%, 10월에는 51% 줄었다. 수입재 재고가 소진되는 내년 초 본격적인 가격 반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미 고율 관세(최대 50%)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평가다.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다는 것이다. 고 환율 기조도 수익성을 제약하는 만큼 철강사들은 수출 외화를 원료 수입에 활용하는 등 환율·무역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철광석 가격은 곧 생선비와 직결되는 만큼 가격 하락은 분명 긍정적”이라며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업계 전반에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K-스틸법과 지원책은 업황 부진 속에 나온 조치라 효과가 곧바로 반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한달 새 주담대 혼합형 금리 0.43% 급등

》1면 ‘기준금리 기대 꺾이자’서 계속

은행들은 가산금리도 올렸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를 보면 하단은 지난 10월 말과 비교해 약 한 달 새 0.430%p(연 3.690%→4.120%)나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옴푼은 0.337%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이 은행채와 코픽스 등의 기준금리에 더해 가산금리까지 올렸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금리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종료하며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면 미리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 미리 대출금리를 인상한다. 사실상 금리인하사이클이 종료되면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도 명확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오르고, 서울은 0.36% 상승했다. 주택매매를 위한 대출은 가계대출로 이어진다.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금리 인상 폭의 대부분은 시장금리 상승분”이라면서도 “당분간 가계대출 총량을 위해서라도 가산금리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대출 수요나 이익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조선, 탈탄소 브릿지기술 개발 속도

OCCS·WAPS 상용화 박차

선상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시스템(OCCS)과 풍력보조추진시스템(WAPS)가 해운 탈탄소 전환의 ‘과도기적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차세대 연료가 여전히 비용·공급망 등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 선단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즉각적인 감축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브릿지 기술이라는 평가다.

7일 대한조선학회에 최근 게재된 ‘첨단 해양모빌리티 동향 정보지’에 따르면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는 단일 연료 전환만으로 해운 탈탄소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암모니아·메탄올·수소·e-연료 등이 장기 핵심축이지만 인프라 구축 비용·안전 규제·공급 안정성 확보에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소 기반 연료는 생산비 부담이 전환 속도를 늦추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린수소는 재생전력을 사용해 전기요금·전해조 가동률에 민감한데,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더해 AI 데이터 센터 확산과 산업계 전력화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소 가격이 높아지면 e-연료·합성메탄올·암모니아 등 파생 연료비도 동반 상승한다. 더불어 암모니아는 독성·취급 문제로 상용화가 지체되고, 메탄올과 액화천연가스(LNG)도 공급망과 메탄슬립 등 한계가 남아 있어 단일 해법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OCCS는 기존 선박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최대 40~50%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TEU당 1tCO₂를 0.5tCO₂로 줄인 예시에서는 OCCS 단독으로 45%포인트 감축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저탄소 강재·연료 공급망이 분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박 한 척 배출의 절반 가까이를 장



한화오션이 건조한 200번째 LNG운반선인 SK해운사의 ‘레브레사(LEBRETHA)’호 운항 모습. /한화오션

치 한 개로 감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WAPS 역시 기존 엔진을 유지하면서 즉각적인 연료 절감+ETS(탄소배출권) 비용 감소 효과가 있어 ‘중간다리 기술’로 꼽힌다. 실선 운항에서는 연료 소비·엔진 부하·소음 감소가 확인됐으며, 선종·선령을 가리지 않는 모듈형 구조로 기존선·신조선 모두 적용 가능하다.

국내 조선사들도 상용화 초기 단계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7월 HMM 2200TEU급 선박에 아민 흡수식 OCCS(용액으로 CO₂를 선택 흡수) 장착 실증을 진행해 순도 99.9% 포집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코마린에서는 자체 개발 탈탄형 풍력보조장치 ‘세이버 윈’을 공개했다. 한화오션은 WAPS 로터세일(회전 날개로 추진 보조)을 전시했고, 광물화 OCCS(CO₂를 고체로 전환)와 아민 OCCS 모두 선급 기본인증(AIP)을 확보하고 있다. HD현대는 지난 6월 항공기 날개 구조를 적용한 ‘윈드세일’을 선보여 육상 실증으로 성능을 검증했다.

다만 업계는 OCCS 확산을 위해 CO₂수송·저장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초기 기술 단계로 대형 선박 적용과 장기 운항 데이터를 포함한 실증 사례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혜은 기자

반도체기업, HBM 한계 넘는다… ‘HBF·PIM·CXL’ 새판

〈고대역폭플래시·프로세싱인메모리·컴퓨터익스프레스링크〉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 비전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기술이 경쟁력 확보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넘어 차세대 메모리 기술 확보에 잇따라 뛰어드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메모리 개발 조직 신설
고용량·고성능·저전력 수요 대응
CXL 3.1 개발… 샘플 공급 앞뒤

◆ HBM 적층 한계, ‘HBF’로 돌파구 찾는다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고대역폭플래시(HBF)다. HBF는 D램이 아닌 낸드플래시를 쌓아 올려 만드는 반도체다. HBM만큼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층을 쌓을 수 있어 대규모 데이터를 읽고 쓰는 데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HBM만으로는 GPU의 연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와 함께, AI추론 시대에 폭증하는 데이터 저장 용량의 한계 극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HBM과 유사하게 실리콘 관통 전극(TSV) 기술을 활용해 여러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 대역폭을 높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

이는 구조가 차세대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특히 HBF가 각광받는 배경에는 AI 산업의 무게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생성형 AI가 일상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며 매일 수십억 건의 연산이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체 AI연산의 약 75%가 추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HBF 표준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샌디스크와 HBF 기술 사양을 공동으로 정의하고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2026년 하반기에 HBF 메모리샘플을

출시하고 HBF를 탑재한 최초의 AI 추론 시스템을 2027년 초에 선보인다는 목표다.

또 SK하이닉스는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린 ‘2025 OCP 글로벌 서밋’에서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 제품 전략을 발표했다. 이 서밋은 미래 데이터센터를 만들기 위한 최신 반도체 기술·성과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SK하이닉스는 추론형 AI에 필수적인 낸드를 성능과 대역폭, 용량별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HBM을 이을 차세대 기술로는 낸드를 쌓아 만든 HBF를 통해 추론 AI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 개발을 통합·총괄하는 ‘메모리 개발 담당’ 조직을 신설했다. 기존 D램 개발실에 낸드플래시 개발·솔루션·패키징 기능을 통합해 고용량·고성능·저전력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차세대 D램은 물론 HBF 등 낸드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 PIM 기술로 AI추론 성능·에너지 효율 확보

메모리 난제로 꼽히는 병목 현상의 해법으로 프로세싱인메모리(PIM) 기술도 부상하고 있다. HBM은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지만 실리콘 인터포저와



SK하이닉스 이천 M16 전경.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하는 등 제조 복잡성과 시스템 비용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PIM은 기존에 데이터 저장 기능만 했던 메모리가 연산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해 전력소모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SK하이닉스, 기술 표준선점 팔 걷어 내년 하반기 HBF 샘플 출시 방침 CXL 2.0 기반 D램 솔루션 본격 개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객사 차세대 칩 개발 일정에 맞춰 D램 기반의 PIM 시장 개화를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2027년~2028년 PIM 개념의 제품이 모바일 등 온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상용화된 이후 2030년대 초반엔 D램 업계 전반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따른다.

양사는 PIM을 D램 기반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용량을 필요로 하는 70억 파라미터(매개변수) 이상의 거대언어모델(LLM)에선 Re램(저항변화 메모리), M램 등 로직 반도체에 비휘발성 메모리를 탑재하는 방식보다 D램에 연산 유닛을 탑재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 CXL기술로 데이터 처리 효율화

아울러 메모리 부족을 해소할 기술로 컴퓨터익스프레스링크(CXL)가 부각되고 있다. CXL은 중앙처리장치(CPU)와 시스템온칩(SoC), GPU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대용량, 초고속 연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존 메모리 모듈에 CXL을 적용하면 용량을 10배 이상 확장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맞춰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특히 서버를 교체하지 않아도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어 AI·클라우드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5월 세계 최초로 CXL 기술을 공개한 뒤 업계 최고 용량인 512GB 모듈을 개발하며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CXL 3.1 개발을 완료하고 샘플 공급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 또한 기존 DDR5 모듈 대비 용량이 50% 확장된 CXL 2.0 기반 D램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고도화와 대규모언어모델(LLM) 확산으로 대용량·고대역폭메모리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CXL이나 HBF 등 차세대 기술이 본격적인 개화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지만 AI 메모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향후 시장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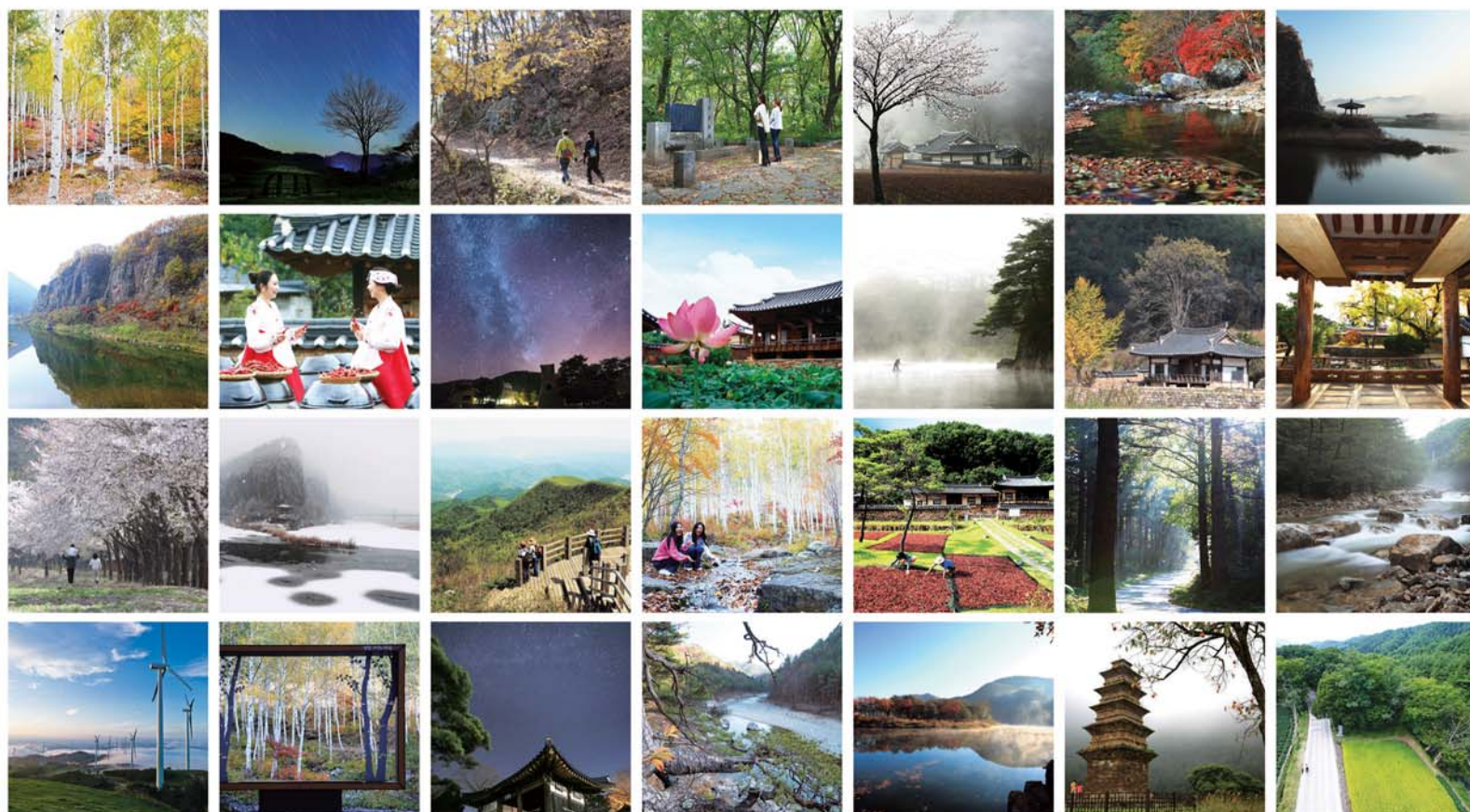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자 CXL 기반 D램 메모리.



SK하이닉스 CMM-DDR5 96GB.



영양군
YEONGYANG-GUN

주말 & 영양

올해 갈 곳은 영양입니다

월·화·수·목·금 ♥ 영양

영양 가있는 ~ 주말!
영양가 있는 ~ 생활!



K-철강, 생산중심 구조 탈피… ‘기술·가치 체제’ 대전환

내년 인사 통해 체질개선 본격화

세아, 특수강 강화 고부가 전략 가속
동국제강, 기동형 조직 구축 대응력 ↑
포스코, DX 신설 데이터 운영 확대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올해 정기임원 인사를 통해 제조 중심 체제에서 기술·가치·민첩성 중심의 경영 체제로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 과잉, 환경·안전 규제 강화 속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세아그룹은 지난 주 총 16명의 승진·선임 인사를 발표하면서 고부가가치 강종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전환에 속도를 냈다.

세아창원특수강 대표이사 선임을 포함한 이번 인사는 내수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특수강·스테인리스 등 고난도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세아는 기술력과 글로벌 사업 경험을 갖춘 인재를 전면 배치해 ‘생산 중심’에서 ‘기술·수익 중심’으로의 전환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



동국제강 인천공장의 한 직원이 예코아크전기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동국제강

동국제강그룹은 조직 개편과 팀장급 조정을 통해 민첩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구조 재편에 나섰다. 변동성이 커진 철강 시장 환경에서 기존 수직적·장기적 의사결정 모델로는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동국제강은 젊고 전문성이 높은 리더들을 핵심 라인에 투입해 제품 개발·전략·영업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동시키고 컬러강판 등 핵심 제품군 중심으로 시장 반응 속도를 높이는 ‘기동형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가장 큰 폭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안전·디지털 전환·글로벌 투자 중심의 미래형 운영 체제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철강업계 전반에서 강화되는 안전·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원 수를 16% 감축해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고 리스크 대응 속도를 높였다.

또한 에너지 효율, 공정 최적화, 품질 관리를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전환(DX) 전담 조직을 신설해 대규모 생산 중심 구조에서 ‘데이터·기술 주

도형 철강사’로의 전략적 이동을 본격화했다.

이번 철강사들의 인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체질 개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임원 축소와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다 민첩하게 재편하는 데 집중했다.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느리고 수직적인 조직 체계로는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철강사들이 수익 구조의 중심축을 제조·내수 기반에서 고부가 기술·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저가 중국산 제품 확산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고난도 강종 개발과 해외 수요 확보가 장기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ESG·안전·디지털 전환을 핵심 경영 과제로 격상해 생산 중심 기업에서 ‘지속가능성·효율성·데이터 기반 경영’을 갖춘 미래형 운영 체제로의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강화되는 규제 환경과 공정 고도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인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기존 철강업의 경쟁 프레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 중심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수요 정체와 중국발 공급 과잉, 환경 규제 강화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거의 생산 확대·가격 경쟁 모델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며 “이번 인사는 철강사들이 생산기업에서 ‘기술·가치 기반의 산업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기업 60% 내년 투자계획 미정 통상위험·고환율 장기화 부담

조직개편·전망 불투명에 투자 지연
축소 기업, 고환율·전망 악화에 부담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이 통상 리스크와 고환율 등 대내외 악재로 내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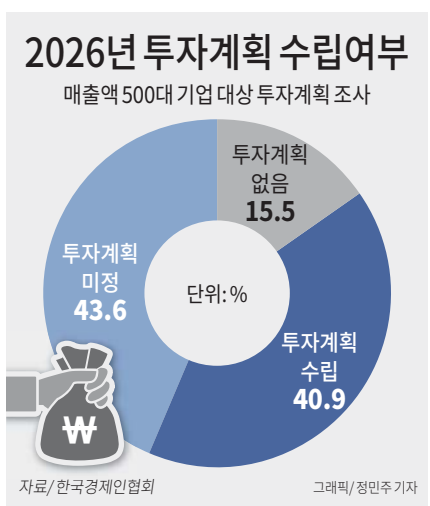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 기업의 59.1%는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43.6%) 투자계획이 없다(15.5%)고 답했다. 계획을 수립했다는 응답은 40.9%였다.

투자계획이 미정인 기업(43.6%)들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 ▲조직개편·인사이동(37.5%)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0%)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18.8%) 등을 꼽았다.

투자계획을 수립(40.9%)한 기업 중 내년 투자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한 기업은 53.4%였다. 올해보다 투자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33.3%,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은 13.3%로 조사됐다.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부정적(26.9%) ▲고환율과 원자재가상승리스크(19.4%) ▲내수시장 위축(17.2%) 등을 들었다.

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미래산업 기회 선점·경쟁력 확보(38.9%) ▲노후화된 기존 설비 교체·



개선(22.2%)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응답 기업 10곳 중 약 4곳(36.4%)은 AI 투자계획을 수립(12.7%)했거나 검토 중(23.7%)이라고 답했다.

AI 투자 목적으로 ▲생산·운영 효율화(공정 자동화, 물류 최적화, AI 에이전트 등 55.1%) ▲경영 의사결정 고도화(데이터 분석, 수요예측, 리스크 관리 등 15.3%) ▲제품·서비스 혁신(AI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12.7%)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내년 가장 큰 투자 리스크로 ▲관세 등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 심화(23.7%) ▲미·중 등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 등을 우려했다. 국내 투자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담(21.7%) ▲노동시장 규제·경직성(17.1%) ▲임지, 인·허가 등 투자 관련 규제(14.4%) 순으로 응답했다

/양성운 기자 ysw@

업비트, 54분 만에 코인 1000억개 유출… ‘늑장 신고’ 논란

해킹 인지 6시간 후 금감원 첫 보고
솔라나 계열 코인 444억 규모 피해
보안 취약성·보고 지연여부 조사 착수

지난달 발생했던 업비트 해킹 사고에서 54분 만에 1000억개 넘는 코인이 외부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업비트는 사고 발생 후 6시간이 지나서야 금융당국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인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업비트에서 발생한 해킹은 새벽 4시42분부터 5시36분까지 단 54분간 이뤄졌다.

당시 해킹으로 빠져나간 가상자산은 솔라나(SOL) 계열 24종 코인 1040억 6470만개, 피해액은 444억8059만원이었다. 초당 약 3212만개(1373만원)의 코인이 탈린 것이다.

이중 업비트 회원 피해 자산은 약 386억원이며, 이 가운데 약 23억원이 동결됐다. 업비트 피해 자산은 약 59억원이다.

피해코인 액수는 솔라나가 189억 8822만원(42.7%·8만8317개)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펄티펄 38억5163만원, 오피셜트럼프 29억1764만원 순이었다.

피해코인 개수는 봉크(BONK)가 1031억2239만개(99.1%·15억 2621만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캐터어독스월드(MEW) 3억7906만개(0.4%·6억 8989만원, 펄티펄 2억2524만개(0.2%·38억 5163만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업비트의 늑장 신고도 지적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업비트



업비트 로고.

지갑실이 사고 정황을 최초 확인한 시간은 지난달 27일 새벽 4시42분이었다. 하지만 업비트가 해킹 사실을 금감원에 유선 보고한 시점은 약 6시간이 지난 오전 10시58분이었고, 시스템을 통해 문서로 공식 보고한 시점은 오전 11시45분이기 때문이다.

이날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가 합병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이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후 18분 만에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열고 오전 5시27분에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입출금을 중단했다. 이어 오전 8시55분에는 모든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지만 해킹 사실을 금감원에 처음 보고한 시점은 오전 10시58분이다. 이 때문에 업비트가 의도적으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그 즉시 금융위와 금감원에 알려야 한다.

강 의원은 “업비트가 해킹으로 445억 원 상당의 100억개 이상 코인이 유출됐

음에도 6시간 늑장 신고했다”며 “관련법 위반 의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에서 솔라나 계열 코인만 전량 유출된 것이 솔라나 플랫폼 자체의 구조적 문제인지 아니면 업비트 결제 계정 방식 문제인지 확실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시스템 보안 문제가 가장 큰 생명인 만큼 (업비트 해킹 사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한계를 보완·강화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보안 전반을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피해자산은 모두 업비트가 총당해서 이용자에게겐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며 “비정상 출금 후 추가 출금을 막는데 집중했고 비정상 출금이 침해사고라고 최종 확인된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국민 모두의
꿈을 키우는 은행

• KB국민은행의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솔루션 •

투자를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KB의 AI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

 **케이봇샘**

일도 자산도 중요한 당신을 위한
투자전략, 세무, 부동산, 법률 1:1 종합자산관리

KB GOLD & WISE

황금빛 인생을 꿈꾸는 시니어를 위한
연금관리부터 증여, 건강관리까지 은퇴 종합 관리 솔루션

KB 골든라이프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상품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계약 필독 -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 발생 가능 - 투자성향분석 결과 부적합시 가입 불가 -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 비보장 - 로보샘(로보 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테스트베드 통과가 수익 달성 비보장 - AI 포트폴리오(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지 않음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797-6호(2025.07.08.), 유효기간 2025.07.08.~2026.06.30.까지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2901호 (2025.7.11.~2026.7.10.)

 **KB 국민은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두고 ‘시끌’… 野, 필리버스터 예고

與,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지
법조계 “중립성·사법부 신뢰 훼손”
범여권 “與 추진 방식, 위험성 있어”
野, ‘필리버스터 제한법’ 저지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가담자의 처벌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법조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면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올해 안에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전국 각급 법원장이 한 자리에 모인 법원장 회의에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지난 5일 전국법원장 정례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이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가 될 큰 염려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의

부 기관이 참여해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재판 담당 법관을 개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검사 등 사법 담당 공무원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적용하는 법 왜곡죄도 내용이 추상적이고 처벌 범위가 오히려 넓어진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엔 이미 찬성을 밝혔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 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

려 한다”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들 법안과 함께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추진하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며 연말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사무총장은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野, 본회의·임시회 앞뒤… 연내 ‘반도체특별법’ 처리 기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는 반영 안 돼
재정 지원 의무화 조항 등 추가 논의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신속처리 미지수

여야가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와 곧바로 임시회까지 앞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합의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연내 처리될지 관심을 모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여곡절 끝에 산자위는 지난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설치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중소·중견 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기업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52시간 제도 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담기지 않은

특별법에 결사반대했지만,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한 민주당이 특별법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상임위 심사 기간이 지나며 법사위에 자동부의 돼, 더 이상 다뤄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민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근로시간을 제한받는다는 것이 산업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일 끼칠 수 있는 만큼 주 52시간 예외를 주장해왔는데 넣지 못해 아쉽다”며 “따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 발자국 정도 나아갔다고 본다”고 했다.

김원이 산자위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주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중국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산업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더 이상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주52시간제 면제에 대한 논의를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 삽입 여부는 논의를 더 거칠 전망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에는 보조금 등 산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특별법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남기고 있고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반도체특별법이 9일 본회의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전 국민에 ‘228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생중계

내년 국정운영 기조 미리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19부 5처 18청 7위원회 포함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내년 국정운영 기조를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부처별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자유 토의도 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이후 생중계 체제로 전환한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K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모두 공개된다. 단 외교나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처 보고의 경우 비공개로 이뤄진다. 업무보고는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직접 순회하며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이후 사안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 현황을 파악해 왔다. 부처별 집중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처음 있는 일로, 2026년 국정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업무보고는 신년에 이뤄진다. 그러나 연초가 아닌 연말 업무보고를 진

행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할 바 있다.

이에 업무보고에서는 부처별 국정현황만 보고되지는 않는다.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이를 토대로 한 민생경제 회복,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정구상을 구체적으로 ‘미리보기’하는 자리인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李 대통령,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
헌법적 가치 복원할 책임자·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사진)를 지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 출신의 김 후보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군인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과 군인문사진상규명 등 사회적 과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감사원장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책임자이자 전문가”라고 기대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1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서예진 기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카드사, 잇단 이커머스 사고에 민원 폭증 우려

3분기 7곳 민원건수 1232건
직전 분기 대비 141건 늘어나
쿠팡 해킹여파로 고객 불안 ▲
무단 결제피해 신고증가 조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G마켓 무단 결제 피해 사태까지 연달아 발생하면서 카드업계가 민원 폭증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7일 여신금융협회의 ‘여신금융회사 민원 건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카드사 7곳(삼성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우리카드·롯데카드·하나카드)의 민원 건수는 1232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건수가 1091건이었던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41건 증가했다.

전 분기 대비 민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카드(66.2%)다. 하나카드(50%), KB국민카드(10%), 우리카드(13.3%), 삼성카드(7.9%)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신한카드(-7.8%), 현대카드(-5.2%)는 전 분기 대비 민원 건수가 감소했다.

롯데카드 민원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배경에는 지난 9월 발생했던 대규모 해킹 사태가 있다. 해킹은 금융사



금융시장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커머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자 메시지. /뉴스

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카드 정지나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원 건수 역시 자연스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 민원은 과거에도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급증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7월에 발생했던 위메프·티몬 사태다.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은 8만 건에 육박했다.

이처럼 해킹 사고나 이커머스 유통가의 각종 이슈는 결국 카드사 민원으로

직결된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만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카드사 민원으로 그대로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쿠팡의 해킹과 G마켓 무단 결제 문제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쿠팡의 설명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계심을 늦출 상

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쿠팡은 카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금융감독원은 쿠팡의 전자금융 거래 플랫폼 자회사인 ‘쿠팡페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을 통해 결제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미 쿠팡에 등록된 카드로 무단 결제됐다는 피해자도 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약 300만원 규모의 금액이 무단 결제됐다는 피해자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60여 명을 대상으로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한 G마켓에 대해서도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G마켓 이용자 60명이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가 무단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이커머스 유통사들의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기는 어렵다”며 “무단 결제 문제가 확산되면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전화를 하는 곳이 카드사이기 때문에 업계도 이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KB손해보험

2025 KCGS 시상식서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KB손해보험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2025년 한국ESG기준원(KCGS)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지배구조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한국ESG기준원의 2025년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에서 7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금융사로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주요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배구조의 선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KB손해보험의 건전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차세대 경영자 실전학습 NSC 아카데미 2기 수료

신한라이프는 지난 3일 차세대 경영자들에게 실전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개설한 ‘NSC (Next Successful CEO) 아카데미 2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2기 과정은 올해 5월 수료한 1기 과정 운영을 통해 차세대 경영자들이 실전 학습과 네트워크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참가자를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해 한층 더 고도화했다.

특히 ▲경영혁신 ▲브랜드 전략 ▲리스크 관리 ▲AI 활용법 등 실제 경영 이슈를 중심으로 테마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총 21명의 참가자들이 각 세션에서 다양한 관점의 인사이트를 공유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한화손해보험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ESG 친환경 활동 진행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경안천 습지생태공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ESG 친환경 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경안천은 큰고니와 흰꼬리수리를 비롯한 여러 천연기념물이 찾아오는 대표적 철새 도래지로, 생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활동은 환경전문교육기관인 녹색교육센터와 협력해 마련됐다. 임직원들은 지난 2023년 설치된 기존 새집을 점검하고 내부 청소 및 노후된 부위를 보수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경안천은 철새 이동 경로에서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새집 관리와 서식지 개선 활동은 겨울에 도래하는 철새 생존율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위험 커진다

개인사업자 폐업률 상승세 지속
연체비중 확대하며 건전성 악화
대출잔액 감소에도 부실 부담 ▲

저축은행이 실적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저축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 사업장의 폐업률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 비중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7일 한국신용데이터(KCD)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상호저축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장의 폐업률은 10.1%로, 제2금융권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전문업권은 8.7%, 상호금융 5.5%, 보험은 4.6% 수준이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폐업률은 올해 들어 지속 상승하고 있다. 폐업 상태 비중은 지난해 4분기 9.2%에서 올해 1분기 9.9%, 2분기 10.0%, 3분기 10.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분기별로 여신전문사(9.3%→9.1%→8.7%), 보험사(4.8%→4.7%→4.6%), 상호금융사(5.7%→5.6%→5.5%)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연체액 비중도 악화 흐름

을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저축은행업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금액 비중은 6.0%로 집계됐다. 여신전문(1.2%)보다 약 6배, 상호금융(3.2%)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분기별 오름세도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비중은 지난해 4분기 5.0%에서 올해 1분기 5.6%, 2분기 6.1%로 상승했다. 다만, 3분기에는 6.0% 수준으로 소폭 조정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총잔액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분기 16조4000억원에서 2분기 15조7000억원, 3분기 14조8000억원

으로 꾸준히 줄었다. 같은 기간 연체금액은 9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9000억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업계 관계자는 “연체액 감소 폭보다 개인사업자 대출 총잔액 감소폭이 더 커서 연체 비중이 소폭 개선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본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측면이 있다”며 “아직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기간에 연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나은행, ‘2025 외국환 골든벨’ 성료

하나은행은 전국의 외국환 우수 직원들이 참여하는 외국환 지식 경연대회인 ‘2025 외국환 골든벨’ 결선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환 골든벨은 하나은행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시작한 외국환 전문 지식 경연대회다.

2025년 외국환 골든벨은 특별히 ‘손님을 향한 금빛 질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단순히 외국환 지식을 겨루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 개개인이 꾸준한 학습을 통해 손님 상담의 전문성을 높여겠다는 하나은행의 의지를 상징한다.

특히, 이번 골든벨에서는 영업 현장에서의 손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등 전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외국환 전문성을 연마하고, 그 노력의 방향이 결국 손님에게 향한다는 하나은행의 손님 우선 철학이 담겼다.

이번 외국환 골든벨은 지난 11월부터 총 3회에 걸쳐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온라인 예선이 먼저 진행됐으며, 회차별로 90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이날 결선 무대는 ▲외국환 법령 ▲외국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등 외국환 전 범위에 걸친 문제가 출제됐으며, 예선전에서 선발된 총 100명의 직원이 소속 지점과 부서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갔다.

/유아리 기자 yul115@

이달 둘째 주 전국 10곳서 1만가구 공급

분양 캘린더

경남 창원센트럴아이파크 등 분양 모델하우스, 역삼센트럴자이 등 7곳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1만2가구가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3646가구나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왕숙B-17(공공분양)’,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대야미A-2신촌희망타운(공공분양)’, 경남 창원시신월동 ‘창원센트럴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일원에 신월2구역 주택재

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창원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2개동, 전용면적 59~103㎡, 총 1509가구 규모다. 이 중 59㎡, 3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 경기 이천시 중일동 ‘이천중리금성백조에미지’ 등 총 7곳이 오픈 예정이다.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역삼센트럴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7층, 4개동, 총 23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122㎡, 총 8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100년 향한 위대한 도전”… 미래비전 반영 콘셉트카 공개

‘기아 80주년’ 기념 행사

정의선 “80년 동안 많은 굴곡 거쳐
英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 닮아”

행사서 ‘비전 메타투리스모’ 공개
디자인 철학, 세가지 주행모드 담아

“기아의 80년은 한편의 서사처럼 ‘위대한 여정’이었다. 100년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이어가겠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진행된 ‘기아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 회장은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청사진을 대담하게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송호성 기아 사장, 임직원 및 외빈 400여 명이 참석해 기아의 지난 80년 여정을 기념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1944년 12월 11일 자전거를 생산하는 ‘경성정공’으로 창립한 기아는 이날 1994년에 이어 30여 년 만에 공식 사사(社史) ‘기아 80년’을 발간하며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진행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에서 브랜드 역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 회장은 “기아는 80년동안 많은 굴곡을 거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동료애를 보여줬다”며 “영국의 전설적인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이 위기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불굴의 의지 등과 닮았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공개한 ‘비전 메타투리스모’의 외장 모습.

다”고 말했다.

기아가 이날 발간한 사사에는 1960년 첫 부도, 1980년 정부의 강제 산업 통폐합으로 인한 승용차 생산 중단, 1997년 법정관리행 등 아픈 과거들도 담겼다. 사사를 집필한 이정규 고문은 “(정 회장이)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만이 아니라 시련과 실패의 뼈아픈 역사도 애누리 없이 기록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기아는 이날 행사에서 미래 비전을 반

영한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도 처음 공개했다. 비전 메타투리스모는 기아가 추구하는 ‘이동의 자유’와 ‘영감의 공간’이라는 가치를 완벽하게 구현한 결과물로, 현장에 모인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차량은 1960년대 기아의 자동차 철학이었던 장거리 여행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운전의 즐거움과 편안한 공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등을 집약했다.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픈핏 유나이티드’를 기반으로 유려한 곡선과 기하학적 실루엣을 조화롭게 담아냈다.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전면 윈드실드를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AR HUD(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다. 운전자는 별도의 고글이나 장비 없이 차량에 탑재된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실제 도로 위에 펼쳐지는 입체적인 가상 그래픽을 경험할 수 있다.

주행 모드는 ‘스피드스터·드리머·게이머’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각 모드에 따라 실내 조명과 사운드, 가상 레이싱 환경이 유기적으로 변화하며 탑승자에게 단순한 이동 이상의 몰입감을 선사한다. 이는 운전의 즐거움과 휴식,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한 공간에서 모두 충족시켰다는 기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카림 하비브 기아 글로벌 디자인 담당 부사장은 “비전 메타투리스모는 역동적인 모빌리티와 사람 중심의 공간을 결합해 기아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며 “기술적 진보를 넘어 감각을 자극하고 영감을 주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유4사, 정제마진 급등에 회복세… 환율·유가·공급 변수 유의해야

러시아 수출 감소, 난방수요 증가 등
중간유 중심 강세… 연중 최고권
정유4사, 근본적 체질변화는 불가피

상반기 조 단위 적자에 빠졌던 국내 정유 4사가 러시아의 정유 수출 차질과 겨울철 중간유 수요 급증, 유럽·미국 정유소 폐쇄 등으로 정제마진이 급등하면서 하반기 들어 일제히 흑자 기조를 회복했다. 정제마진 강세가 4분기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환율·유가·공급 변수에 따라 이번 호황이 반짝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지난 1일 기준 배럴당 14.6달러

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손익분기점(4~5달러)의 세 배를 넘는 높은 수준이다. 올 초 배럴당 3.8달러 수준에서 출발한 뒤 중간유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며 연중 최고권에 올라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유럽·아시아 정제마진은 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미국 중부 지역 정제마진도 시설 중단 후 단기간에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1차 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해석이다. 러시아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 등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수출 물량이 줄었고, 겨울 난방 시즌이 겹치며 경유·항공유 수요가 급증해 중간유 공급은 빠듯해졌다. 여기에 유럽·미국 정유

소 폐쇄와 정기 보수, 사고·정전 등으로 인한 비계획 가동 중단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정제능력이 눈에 띄게 위축된 것이다. IEA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 세계 정유 생산량은 7~8월 하루 8540만배럴 안팎에서 약 4백만배럴 줄어든 8150만배럴에 그쳤고, 미국 원유 처리량도 여름철 1750만배럴/일에서 이달 1560만배럴/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상반기 조 단위 적자를 냈던 국내 정유사들은 3분기 정제마진 회복에 힘입어 일제히 흑자로 돌아섰다. 에프엔가이드는 SK이노베이션의 4분기 영업이익이 32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10% 늘고, 에스오일 영업

이익도 2880억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상장사인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 역시 전년 동기보다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며 러시아산 원유가 재유입되면 원유 공급 여력이 커지면서 유가 하향 안정과 정제마진 강세가 겹쳐 정유사 수익성을 떠받칠 것이라 기대도 나온다.

다만 환율·유가 변수는 부담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면서 연간 10억배럴 이상 원유를 전량 달러로 사들이는 국내 정유사들의 조달 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환율이 10% 오를 경우 법인세 차감

전 손이익이 약 1544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유가가 하락하면 고가에 들어온 재고를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재고평가손실 위험도 커지고, 북반구 난방 시즌을 앞두고 정유소들이 연말까지 높은 마진을 노리고 가동률을 끌어올릴 경우 이후 공급 타이트 현상이 완화되면서 정제마진이 다시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병준 한국폴리텍대 석유화학공정과 교수는 “이동수단 연료로서 정유제품 수요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지금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정유 4사도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SK하이닉스, ‘GSA 어워즈’ 2개부문 수상 (세계반도체연맹)

최우수 재무관리 반도체 기업상
우수 아태 반도체 기업상 수상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무대에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반도체 분야 주요 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개최된 세계반도체연맹(GSA) 주최 ‘GSA 어워즈 2025’에서 ‘연 매출 10억 달러 초과 부문 최우수 재무관리 반도체 기업상’과 ‘우수 아시아 태평양 반도체 기업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GSA 어워즈는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반도체 산업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리더십, 재무 성과, 업계 존경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최고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SK하이닉스는 최우수 재무관리 부문

에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을 했고, 아시아 태평양 반도체 기업 부문에서는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불과 2년 전 예상치 못한 다ownturn으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앞선 인공지능(AI) 메모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며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압도적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획기적인 HBM 설루션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고객 수요에 적기 대응한 SK하이닉스의 기술리더십과 고객 중심 경영이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평소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기술 경쟁력 확보

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기술 투자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과 재무 건전성 강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회사는 2025년 들어 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3분기 누적 매출 64조원, 영업이익 28조원으로, 2024년에 달성한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인 매출 66조원, 영업이익 23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재무 건전성도 크게 개선됐다.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이 27조 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조 9000억원 늘어난 반면 차입금은 24조 1000억원에 그쳐, 약 4조원의 순환금 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SK하이닉스 김주선 AI인프라 사장은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풀 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서 고객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AI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LG 콤포트 키트’ 라인업 4종 확대

‘세탁기 이지세제킵’ 등 공개

LG전자가 누구나 가전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LG 콤포트 키트’의 라인업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성별·나이·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이 가전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자체 개발한 보조 액세서리 ‘LG 콤포트 키트’의 신규 라인업 4종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LG 콤포트 키트’의 제품 수는 18종으로 늘었다.

신제품은 장애 및 시니어 고객 외에도 영유아 자녀를 둔 고객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객들의 사용 경험을 고려해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세제 투입구와 투입량을 알기 쉽게 표시해주는 ‘세탁기 이지세제킵’ ▲정수기 출수 위치에 정확하게 컵을 놓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정수기 이지트레이

(물받침)’ ▲도어를 편리하게 여닫도록 돕는 ‘식기세척기 이지핸들(도어)’ ▲전면부 터치 버튼의 위치와 기능을 촉각으로 알도록 안내해주는 ‘전자레인지 터치 가이드’ 등이다.

그중에서도 ‘정수기 이지트레이(물받침)’의 경우 초기 아이디어는 시각 장애 고객들이 정수기 출수구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해 기획됐지만, 시선이 낮은 휠체어 이용 고객이나 키가 작은 영유아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까지 고려해 물을 흘리지 않도록 돕는 물받침 기능까지 더했다.

LG전자 HS사업본부장 백승태 부사장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를 맞춘 ‘LG 콤포트 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가전 사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정부, 수·위탁 실태조사 제도 개선

중기부,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수도권 표본 비율 32%→50%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관리 강화

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표본중 비율을 기존 32%에서 50%로 높이는 등 집중 조사한다.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하게 관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급변하는 환경 대응, 조사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5년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도 8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수·위탁거래 관계가 있는 1만 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수·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준수 여부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조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디지털화 확대 등 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조사 표본(위탁기업 3000개사)을 재설계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비수도권 기업 비중이 높던 기존 표본을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50% 비율로 재설계해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했다. 기존엔 수도권 32%, 비수도권 68%였다.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취약업종을 선정해 관리한다. 전 산업 대비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불공정 이슈 업종(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500개사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법 위반률 등 조사결과를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위탁기업 설문조사도 신설한다. 변화하는 거래 관행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탁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설문조사를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양방향 설문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조사대상 거래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작년까지는 해당연도 상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해 하반기 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 거래를, 내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1단계)→수탁기업 설문조사(2단계)→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3단계) 차례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한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중기부 이은정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견업계 회원 지원 강화



중기중앙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뉴욕상공회의소(Greater New York Chamber of Commerce)와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두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마크 제피 뉴욕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K-기업 뉴욕 진출 길 연다

뉴욕상공회의소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가 뉴욕상공회의소와 우리 중소기업들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뉴욕상공회의소(Greater New York Chamber of Commerce)와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마크 제피(Mark Jeffe) 뉴욕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중기중앙회 배조웅 수석부회장, 강동한 부회장

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황병구 회장, 김미경 이사장, 존 박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 중소기업의 뉴욕 광역권 진출을 위한 바이어·투자자 발굴 ▲양국 기업인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 촉진 ▲미국 시장 동향 및 정책 정보 공유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 K-푸드, K-뷰티, K-굿즈 등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국 최대 시장인 뉴욕에서 중소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안정적 효율·성능…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



자동차 시승기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

합산 235마력… 정숙성·연비 등 강점
전 트림에 주요 안전기능 기본 탑재

현대자동차 준중형 SUV 4세대 투싼은 지난 2020년 9월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부분변경과 연식변경을 거치며 상품성을 높였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역대 투싼 가운데 가장 완성형 모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내년 하반기 5세대 투싼(NX5)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4세대 하이브리드 모델의 완성도를 확인했다.

시승한 투싼 하이브리드는 효율과 주행 성능 모두에서 안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1.6리터 싱글터보 엔진과 전기모터 조합은 엔진 단독 180마력, 시스템 합산 235마력을 발휘하고 35.7kg·m의 토크는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여유로운 힘을 제공한다. 도심에서는 엔진 개입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숙해 전가차 같은 감각을 주고, 고속 영역에서는 자연스러운 엔진 응답과 안정된 차체가 편안한 주행을 돕는다.

3세대에서 지적되던 풍절음과 노면소음은 크게 개선됐다. 바닥 카펫 보강, 흡차음재 확대, B필라 및 운전석 하단 보강, 기존 앞유리에서 1열 도어까지 확장된 이중접합 차음유리 등이 주행 정숙성을 높였다. 요철이나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이 적고, 코너링에서도 차체가 흔들림 없이 자세를 유지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침착한 주행 감각을 제공한다.

연비 경쟁력도 강점이다. 복합 기준



현대차 투싼 외관 모습.



현대차 투싼 실내.

/이승용 기자

14.3~16.2km/ℓ, 도심 14.4~17km/ℓ, 고속도로 14.1~15.2km/ℓ로, 하이브리드 특성상 도심에서 효율이 더 좋다. 출퇴근 중심 사용자에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외관은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과 주간주행등 역할을 겸하는 ‘히든 램프’가 강렬한 전면 이미지를 만든다. 측면의 깊은 캐릭터 라인과 후면의 일자형·세로형 램프 조합은 단단한 SUV의 존재감을 강조한다.

실내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센터 모니터가 이어지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는다.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디자인은 시

인성을 높였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블루링크 스트리밍 등 최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지도·드라이브 모드·오토홀드 등 자주 쓰는 기능은 물리 버튼으로 남겨 조작 편의성도 확보했다. 컬럼 타입 변속기와 플로팅 센터 콘솔은 실내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고 시트는 탄탄한 가죽 소재로 내구성을 확보했다.

2열 공간은 휠베이스 확장 덕분에 성인 남성이 앉아도 충분한 만큼 여유롭고 등받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장거리 편안함을 뒷받침한다. 2열을 접으면 성인이 넓기에도 충분한 평평한 공간이 만들어져 간단한 차박도 가능하다.

편의 기능으로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HUD 연동 기능 등이 제공되고 안전 사양은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 주요 시스템이 전 트림 기본이다.

새로운 세대 출시가 가까워졌음에도 4세대 투싼 하이브리드는 효율, 공간, 정숙성, 주행 안정감을 모두 갖춘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견련, 회원사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 나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회원사들을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서비스 개발 등 법률 지원에 나선다.

중견련은 지난 5일 서울 마포 중견련에서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적 분쟁 및 손해 배상 리스크 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네 기관은 선제적인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현장 조사·규제 의무 위반 비용 등 관련 특별약관이 적용된 중견련 회원사 전용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체계적인 소송·분쟁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경영이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자조 섞인 인사가 이해되는 현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내야 한다”면서 “성공적인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과 소비·투자·수출 회복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가 지속가능한 산업 펀더멘털 고도화의 모멘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 법률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여경협, 펌테크 주제 ‘네트워킹 데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펌테크(FemTech)를 주제로 회원사들과 함께 새 비즈니스 기회 창출 모색에 나섰다.

여경협은 서울 강남구 삼성호텔에서 여성CEO 및 여성임원 150명을 대상으로 ‘네트워킹데이’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서 펌테크 분야를 선도하는 수젠텍 손미진 대표와 이너시아 김효이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현장

의 생생한 경험과 산업 전망을 공유했다.

강연 이후 참석자들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교류하고, 펌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취지에 맞춰 펌테크를 중점 육성 분야로 삼고, 여성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잇단 유출에 신뢰 잃은 ISMS-P… 사고 땀 즉시 인증 취소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대형 기업유출 반복 무늬 인증 논란
정부, 실증심사 도입 형식 심사 축소
사고 땀 특별심사 착수 결함 시 취소
위험 기업엔 기술심사로 장벽 강화

‘보안 최후 보루’로 여겨졌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이 대형 정보 유출 사고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정부가 뒤늦게 제도 전면 수습에 나섰다.

쿠광,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들에서조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다. 결국 “돈만 내면 따는 면피용 간판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가 뒤늦게 제도 전면 개편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7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 6일 송경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칼질을 시작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후 처벌 강화’와 ‘진입 장벽 상향’이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101개에 달하는 엄격한 보안 항목을 충족해야만 부여된다. 그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 세번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ISMS-P 인증 개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 현실은 달랐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 자료를 따르면 2020년 이후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있던 기업 27곳에서 총 34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권현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실에서는 실질 심사보다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 및 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의 목표는 ‘이름뿐인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제도로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 그간 기업들이 인증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보안 투자에는 소홀했다는 ‘인증 무용론’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우선 ‘무늬만 인증’인 기업의 자격을 박탈하는 고강도 처방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특별 사후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인력과 기간을 두 배로 늘려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국회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광이 첫 인증 취소 사례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기업 퇴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심사 방식도 현장 중심으로 대폭 바뀐다. 그동안 서류와 샘플 점검 위주였던 본심사는 핵심 시스템에 대한 실증형 검사로 전환된다. 진입 장벽도 높아진다. 정부는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항목을 우선 검증하고, 기존 미충족 시 인증 신청 자체를 반려하기로 했다. 특히 과거 유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예비 심사 단계부터 취약점 진단과 모의 해킹(침투 훈련) 등 고강도 기술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통신사, 주요 공공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ISMS 및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도 추진한다. 자물에 맡겼던 영역을 법적 의무로 강제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정책국장은 “ISMS,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유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약 10%로 인증이 ‘하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제도의 순기능을 잘 살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증 제도 강화만으로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현 메타)의 개인정보 위반에 대해 연 매출의 9%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5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아 기업들이 보안 투자보다 과태료를 내는 편을 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증 취소를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등 실질적인 금전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안 역시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정부, IP카메라 영상피해 방지 종합대책 마련

정부, 취약 비밀번호 해킹에 즉각 대응
피해자 지원 확대, 관련범죄 수사 강화
신체노출 시설 중심 보안인증 의무 추진

정부는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IP카메라는 가정과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해킹과 영상 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국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검거된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약 12만 대의 IP카메라는 단순하거나 이미 유출된 비밀번호를 사용해 추가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

자를 식별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법률·의료·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한다. IP카메라 해킹, 성착취물 판매·유통, 해당 영상의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에 강화한다.

지난해 실시한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결과, 설치 대형업체와 이용자 모두 보안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설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통해 보안조치 이행을 유도한다.

범죄 위험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는 개

인정보보호협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보안수칙을 지속 안내한다. 고령자와 농어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사례와 보안수칙 교육을 진행한다.

또 기존 사후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주요 제품의 보안성 점검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 노출 시설에서 사용하는 IP카메라는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기존 출시 제품에도 해당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

조사와 협의를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엔씨소프트,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공개

AGF서 신작 시연하고 CBT 모집 진행

엔씨소프트가 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애니메이션·게임 페스티벌인 ‘AGF 2025’에 서브컬처 애니메이션 액션 RPG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로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브레이커스는 박게임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엔씨소프트가 퍼블리싱하는 애니메이션 수집형 액션 RPG다. 일본 엔터테인먼트 기업 카도가와와 협업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사 MAPPA도 참여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위버랜드를 부탁해’, ‘크리스티앙의 지원사격’ 등 미니게임과 롤렛 이벤트를 운영했다. 코스어 ‘마이부’가 주요 캐릭터 ‘헬렌’으로 분장해 관람객

들의 이목을 끌었고, 유튜브 ‘빙하유’와 ‘라디유’도 테마 카페 구역에 참여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행사에서 브레이커스의 비공개 테스트(CBT) 참가자 모집도 함께 진행했다. 신청은 AGF 현장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CBT는 구글 플레이와 스팀에서 진행된다. 참가자 중 일부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된다.

브레이커스는 원소의 힘을 다루는 능력자 ‘브레이커’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신들의 서고’로 향하는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모두를 위한 영웅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세우기 위해 떠나는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김보민 기자 kbm@

공공 행정 혁신 이끄는 AI 서비스 공개

네이버클라우드 정부혁신 박람회 참여

네이버클라우드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공공 업무와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실제 공공 현장에서 활용 중인 AI 서비스를 중심으로 행정 분야의 AI 전환 사례가 공유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범정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으로 시범 운영 중인 네이버웍스를 비롯해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공공망에서 AI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CLOVA Studio for Gov’ 등 행정·민원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서비스가 시연됐다.

특히 네이버웍스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중앙 부처에서 시범 운영 중인 업무 협업 플랫폼으로, 회의록 자동 요약, 메일 요약 및 답장 초안 생성, 미열람 메시지 요약, 기관별 맞춤형 AI 어시스턴트 생성 등 공공 행정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열린 ‘웍스 워크숍’ 세션에서는 제주도청, 부산광역시 등 주요 공공기관이 네이버웍스를 도입해 업무 방식을 개선한 사례가 소개됐으며, AI 기반 행정 업무 전환이 실제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서현 기자

LGU+, AI 비서 ‘익시오’ 개인정보 유출

캐시설정 오류로 타인 통화정보 노출
즉시 차단 조치 후 피해자 안내 완료

LG유플러스가 야심 차게 내놓은 인공지능(AI) 통화 비서 ‘익시오(IXI-O)’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LG유플러스가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앞세워 강력한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핵심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온 직후 발생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익시오 통화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 사이에 발생했다. 최근 진행된 익시오 서비스 운영 개선 작업 중 개발진의 ‘캐시(임시 저장 공간)’ 설정 오류가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해당 시간 동안 익시오 앱을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의 화면에, 엉뚱하게도 다른 고객 36명의 개인정보가 일시적으로 노출됐다.

노출된 정보는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간 ▲통화 내용 요약 등이 다. 주민등록번호나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적인 대화가 AI로 요약된 텍스트 정보가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그대로 보여진 셈이다. 피해 고객 1명의

정보가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에게까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개인 맞춤형 기능을 강화한 ‘익시오 2.0’을 공개하고, 이어 11월에는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 ‘익시오 AI 비서’를 선보이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처리되는 ‘온디바이스 환경’을 구축해, 보이스피싱 탐지와 통화 요약 기능을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LG유플러스는 3일 오전 10시경 문제를 인지한 즉시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에 착수해 노출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고객 전원에게는 유선과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를 마친 상태다.

/김서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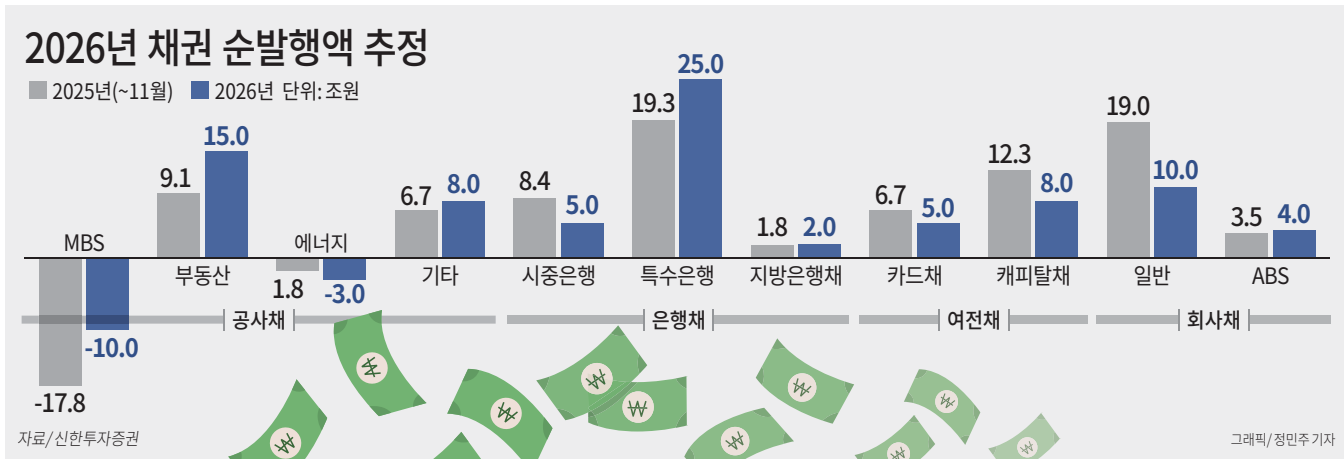
내년 ‘초우량채’ 발행 예고… 금리 부담에 기업 자금조달 비상

공사채·MBS 초우량물 공급 확대
일반 회사채 수요 ‘구축효과’ 우려
국고채 금리 연중 최고치 경신
내년 회사채 만기 78조2000억
기업들 발행 연기·축소 잇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 한미투자전략기금 신설 등으로 초우량 채권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사채, 특수은행채 등 우량채가 회사채 시장에 쏟아지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반 회사채는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 때문에 회사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내년으로 발행 계획을 미루는 곳까지 나왔다.

◆우량채에 가려 회사채 찬밥 우려

7일 금융투자업계와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내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은 10조원 이상 순상환이 예상된다. 그러나 초우량채 발행에 따른 수급 완충 효과를 기대하기에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다. LH 등 공사채 발행 증가가 예상되고 한국전력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한국전력은 3



분기 기준 부채 118조6000억원, 부채비율 490%, 차입금 잔액 86조1000억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비용만 73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된다. 발행사가 주금공인 만큼 한전채와 마찬가지로 공사채에 해당돼 일반 회사채보다 선호도가 높다.

일각에서는 회사채 등의 만기 규모가 급증하면서 채권 시장의 ‘구축(驅逐)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 회사채는 총 78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68조7000억원)나 지난해(73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5조~10조원

가량 많다.

국내 한 증권사 회사채 담당 임원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를 넘나드는 상황이라 신용등급이 AA급 이상인 대기업들의 회사채 금리도 3%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며 “내년에 각종 정부 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공사채 발행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 회사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MBS 순상환은 공사채 내부 수급 완충에 그칠 가능성이 커 초우량물 공급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면서 “다른 채권 공급 부담을 제어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급 주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은행들이 수요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주주환원 정책 및 자본비용 제고를 위해 위험가중 자산을 억제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까지 상승하고 있다. 국고채 금리는 이달 1일 일제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5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994%, 5년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각각 3.198%, 3.358%를 기록 중이다.

◆자금 조달 미루, 단기채 시장 기웃

높아진 조달비용에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미루거나 줄이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KCC글라스 등은 본래 계획했던 회사채 발행 일정을 연기했다. SK텔레콤은 이달 중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2400억 원대 회사채를 발행하려다가 이를 내년 1분기(1~3월)로 미뤘다. KCC 글라스도 마찬가지로 이달 중 최대 1500억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하려다가 내년 초로 일정을 연기했다. 회사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기업들도 있다. 최근 HDC와 KT, SK온은 기존 계획보다 500억~1000억원가량 발행 규모를 줄여 회사채를 발행했다.

공모채 시장에 한파가 찾아오면서 일부 기업은 신종자본증권 등 사모채나 단기 자금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최근 롯데건설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일에는 CJ CGV가 250억원 규모의 6개월물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등 단기 자금 시장을 노크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국고채 금리 주변 여건도 불안하다. 이승재 iM증권 연구원은 “국고금리 방향성이 상단을 향해 트리아하는 동시에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면서 “환율 상승과 변동성 확대, 수입물가가 소비자물가로 전이돼 물가 레벨이 상승할 수 있는 부담,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내년 국고채 중심 채권 발행량 증가(공급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증시 활황에도 증권사 전산은 ‘불안’

키움증권 민원 1.2만건, MTS·HTS 오류
ATS 출범 후 증권사 시스템 부담 확대
계좌금액 오류·타인 체결내역 전송 사고

‘불장’ 속 국내 증권사들의 전산 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며 투자자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증시 유동성 확대로 시스템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증권사들은 전산운영비를 늘리며 안정적 거래 환경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5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삼성·키움증권 등)의 올해 3분기 누적 전산장애 관련 민원 건수는 1만2076건으로, 전년 동기 17건 대비 폭증했다. 특히 키움증권이 지난해 0건에서 올해 1만2036건으로 뛰면서 전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삼성증권은 0건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과 6월 홈트레이딩 시스템(H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



ChatGPT로 생성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전산 오류에 불만을 표현하는 개미(개인 투자자)’들’ 이미지.

템(MTS) 접속 오류로 2분기에만 1만2013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 11월 6일에도 약 30분 정도 MTS 접속 오류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을 샀다. 앞서 9월 주식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 부문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자체 구축 시스템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태다. 키움증권은 대체거래소 구조를 위한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유일한 증권사다.

올해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함과 동시에 상반기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하면서도 증권사들의 HTS·MTS 오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상반기에도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들이 대체거래소의 성장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산 오류가 잦아진 바 있다.

지난 4일에도 개장 직후 한화투자증권 MTS에서 일부 고객의 계좌가 평일 대비 최대 수천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표시됐다.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 이자가 과대 산정된 영향으로 실제 피해나 금전적인 손실은 없었지만,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혼선을 빚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달 2일 메리츠증권의 MTS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신하은 기자

반도체 분야 ETF 순자산 7000억 돌파

한투운용 최근 1년 수익률 81%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기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의 순자산액은 70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말 순자산액 6000억원에서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1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는 반도체 산업 내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등 4대 핵심 분야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현재 편입 종목 상위권에는 ▲SK하이닉스(24.15%) ▲ASML(20.83%) ▲

엔비디아(17.80%) ▲TSMC(17.79%)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당 ETF는 지난 2022년 11월 15일 상장한 이후 현재까지 351.67%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 및 1년 수익률도 각각 336.26%와 81.01%로 집계됐다. 영역별 대표 투자가 업황 변동성을 완화하고 ▲한국 ▲네덜란드 ▲대만 ▲미국 등 글로벌 분산투자자 연결된 결과다.

ETF CHECK에 따르면 해당 ETF로 최근 1개월 새 유입된 자금은 697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반도체 ETF 51개 평균치(276억원)를 크게 상회한다. 같은 기간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 또한 149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하은 기자

4분기 새내기주 129%↑… 공모주 온기 회복

에임드바이오 등 ‘따따블’ 속출

4분기 들어 새내기주 수익률이 고공행진하면서 공모주 시장에 온기가 번지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후 이달 5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11개사(리츠·스팩 제외)의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129.4%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19.7%)와 코스닥(9.8%) 수익률을 대폭 웃도는 수치다.

종목별로 보면 에임드바이오(420%)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노타(389%), 큐리오시스(225%), 이노테크(157%), 아로마티카(108%) 등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상장 첫날 종가를 보면 11개 종목은 공모가 대비 평균 127% 올랐다.

이들 11개 종목 중 2개사가 상장 첫날 ‘따따블’(공모가의 4배)을 기록했으며, 4개사가 ‘따블’(공모가의 2배)을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7일 코스닥에 상장한 이노테크가 지난 2월 24일 상장한 위너스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따따블’을 달성했으며, 이달 4일 상장한 에임드바이오도 공모가의 4배에서 장을 마쳤다.

아울러 명인제약(10월 1일 상장), 노타(11월 3일 상장), 씨엠티엑스(11월 20일 상장), 아로마티카(11월 27일 상장)도 줄줄이 첫날 ‘따블’을 달성했다.

/신하은 기자

미래운용,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7조 돌파

상장 15주년 누적수익률 1500%
장기투자 대표 ETF로 자리매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이 7조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은 7조2422억원이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 지수 투자 상장지수펀드(ETF) 중

최대 규모다. ‘TIGER 미국S&P500 ETF’,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중 나란히 순자산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다. 지난 10월 상장 15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장수 미국 투자 ETF로, 상장 이후 현재까지 1500% 넘는 누적수익률을 보여주며 ‘장기투자 대표 ETF’

로 자리매김했다. 상장 당시 1만원이었던 주당 가격은 현재 16만원을 넘어섰다.

순자산 규모는 지난 9월 말 6조원을 돌파한 이후 불과 2개월만에 1조원 가량 증가했다.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주의 견조한 실적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나스닥100 지수는 올 들어 미국 3대 시장대표 지수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하은 기자

코트라 예산 첫 9000억 돌파 수출 1조달러 위해 전폭 지원

AI·경제안보·신흥시장 집중
수출스타 500 육성 전력 질주
글로벌사우스 시장 공략 강화
경제안보·공급망 대응역량 제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2026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원을 넘어선 915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6667억 원) 대비 37% 늘어난 규모로, 수출 다변화와 경제안보 기능 강화에 주력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

먼저, 코트라는 내년에 수출기업 지원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신규 사업을 대폭 확충했다. 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중추기업을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신설하고 402억원을 편성했다. AI·방산 등 유망산업 기업 100개사를 매년 선정해 해외마케팅, 인증, Post R&D 등 전주기 지원을 묶어 제공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500개사 이상의 기업을 육성해 수출 저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류 하이웨이'를 구축해 한류와 결합한 K-소비자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해외 유통망과 협업에 더해, 국내 유통망과 한류 소비재 동반 진출을 지원하는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492억원을 배정했다. 한류 선호도가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대·중소 소비재 유통망



코트라 본사 전경 /코트라

자체 해외 진출과 함께 K-식품, K-뷰티 등 소비재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공략도 본격화한다. 코스타리카와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해외무역관을 신설하고 420억원을 확보해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을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집중한다. 현지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사우스 진출에 앞장설 예정이다. 중남미·중앙아시아 등 신흥권에서 새로운 수출 기반을 확보해 구조적 수출 확대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 첨단

산업 해외인재유치, 방산 및 경제통상 대응 등 경제안보 분야 예산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424억원 규모의 '긴급지원바우처'를 지원해 관세 피해·분석, 대체시장 발굴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수출기업 대응 역량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도 크게 확대한다. 내년 관련 예산은 350억원으로 전년대비 667% 늘렸다. 특히, 신규로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 촉진사업' 291억원을 활용해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품목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 강화에 투입한다. 경제안보 품목 모니터링과 수입선 다변화 자금도 59억원 확보했다.

코트라는 이외에도 AI 선도기관으로서 국가대표 AI 전시회 개최(20억원), 'AI 수출 비서' 개발(39억원)을 통한 무역투자 시스템의 AI 대전환 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으로, AI 3대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소중한 예산이 수출 기업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내년에도 수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수출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 수출 5강 시대를 앞당기고,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시스템반도체 인재 1400명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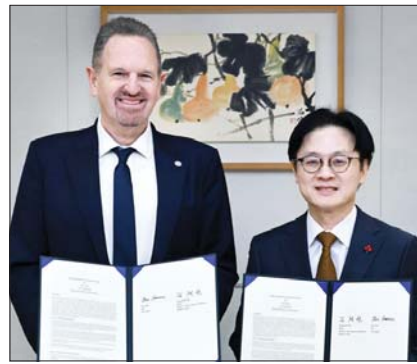
산업통상부, Arm과 MOU 체결
실전형 교육 플랫폼 Arm 스쿨 신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IP 설계 기업 Arm과 손잡고 국내에서 2026년~2030년까지 향후 5년간 1400명의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을 양성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5일 Arm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가칭' Arm 스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르네 하스 Arm CEO와 회담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Arm은 소프트뱅크가 약 90% 지분을 보유한 세계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으로, 애플·구글·MS 등 빅테크와 삼성전자·엔비디아·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의존하는 핵심 컴퓨팅 아키텍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IP는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미리 회로로 설계해 둔 설계 블록을 말한다.

이번 MOU는 한국 내 반도체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비롯해 △기술교류 및 국내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협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R&D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향후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세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Arm 스쿨'은 Arm의 글로벌 IP 기술과 국내 교육기관·기업 네트워크를 연계한 실전형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의 설계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기반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광업 생산성·안전 강화에 1095억 투입

광해광업공 '민간지원 사업' 통해
경영부담 커진 광업계 실질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내년 광업 생산성 제고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총 1095억원 규모의 민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채광장 심부화와 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국내 광업계에 실질적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광해광업공단은 지난 5일 원주 본사에서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민간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광산 현대화·정밀조사·안전시설·용자지원·ESG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광산의 생산량 확보를 위해 경도굴진 및 광산 현대화 사업 등에 55억원, 국내 핵심광물과 석회석, 규석 등

산업원료 광물의 부존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탐광시추 사업에 35억원을 지원한다.

또 광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갯내 통신장비, 긴급대피 및 추락방지시설 등 광산안전시설에 134억원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법정 의무 안전교육, 광산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광산업체·광산물 가공업체·석재가공업체 등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에는 총 800억원의 융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ICT 기반 생산성 향상 장비(스마트마ining), ESG 경영을 위한 친환경 설비를 우선 지원하고 중소광산에 우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SG 컨설팅, 고용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국산 바나듐 흐름전지로 해외공략 시동

에이치투와 수출 공동협약 체결
개발부터 운영 전과정 긴밀 협력

한국남부발전이 국산 에너지저장시스템(VFBESS)을 앞세워 해외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5일 에이치투와 '국산 바나듐 흐름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VFBESS)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산 ESS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바나듐 흐름전지는 화재 안전성이 높고 장시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해 신재생 기반 전력망의 안정성 확보에 적합한 기술로 꼽힌다. 남부발전과 에이치투는



남부발전 오윤석 아시아개발부장(오른쪽)과 에이치투 한신 대표가 지난 5일 '국산 흐름전지 ESS 수출 공동지원 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이러한 기술적 강점을 앞세워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국산 기자재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부발전의

해외 IPP(독립발전사업자) 네트워크 및 사업개발 역량과, 에이치투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국산 바나듐 흐름전지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사업 기회 및 현지 파트너 발굴 ▲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 ▲제품 타당성 검토 및 프로젝트 구조 설계 ▲투자 조달 방안 ▲기술·운영 지원 체계 구축 등 사업 개발부터 운영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특히 단순한 기술 수출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업과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주요 시장의 정책·제도·수요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부발전, 110MW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

롯데케미칼 등 2곳과 유기적 협력

한국중부발전이 롯데케미칼, 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손잡고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가속화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5일 충남 보령 본사

에서 롯데케미칼, 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110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사는 각 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할을 나뉘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중부발전은 재생에너지 전기 중개자로서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사이에서 전력을 확보·공급하는 총괄 매니지먼트를 맡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전력 중개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기업인 롯데케미칼은 중부발전으로부터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조달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의 RE100 이행을 가속화하고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씨밋에너지얼라이언스는 공급자 역할을 담당한다. 대호지 솔라파크(70MW) 등 이번 계약의 핵심 발전 자원을 조성·운영하며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책임진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

농축산식품부, 5년간 100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마을의 난개발·위해요소 정비 및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는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정비 하거나 이전한다. 이후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선정된 지구에는 개소당 5년간 총 100억원가량이 지원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난개발·위해시설 정비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 상주 덕산지구의 경우, 그간 악취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들은 폐축사 등의 철거만으로도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곳에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해 주민들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 충북 증평 화성지구는 30년간 방치돼 각종 오염물질 발생 및 붕괴위험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장기방치 건축물의 철거를 확정했다. 철거 후 해당 부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각 지구에서 농촌공간의 정비와 재생을 목표로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울산시, 복지예산 1조9539억 편성… 출산·양육지원 확대

출산·양육 보육지원 예산 4476억
난임 부부 시술비 등 부담금 환급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개선

울산시는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5조 6446억원 가운데 34.61%인 1조 9539억원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정책은 ▲임신·출산~아동 ▲청소년~청·중장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외국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 출산·양육 분야 보육지원 예산은 약 4476억원 규모다.

울산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일부 환급을 지속 시행한다. 재가돌봄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아 최대 20만원, 둘째아 최대 3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40만원을 돌려준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가 병원 진료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면 1회 평균 7500원을 월 4회까지 지원받는다. 다태아 가정을 위한 안심보험 지원도 신



울산시청.

/울산시

규 추진돼 출생일로부터 2년간 응급실 내원비, 질병치료 입원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500만원이 제공된다.

보육환경도 개선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1인당 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가 1인당 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외국인 주민 자녀는 1인당 월 최대 28만원까지 보육료를 받는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되며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

의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시 최초로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68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내년에는 송정센터와 범서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는 'U-맘스 수면 휴게 쉼터'가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2층에서 운영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 부담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부모커뮤니티센터'도 설치돼 아동 놀이실과 프로그램실을 통한 자조

모임형 돌봄이 활성화된다.

영유아와 초등학교를 둔 2~5가정의 자조 모임형 돌봄에는 월 30만~45만원을 지원하는 '이웃애(愛) 돌봄사업'이, 마을도서관과 공동주택단지에는 돌봄인력을 과전하는 '늘결애 돌봄사업'이 운영된다. 지역아동센터 57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32개소를 통한 초등 돌봄도 강화된다.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단가는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통해 아동이 매달 적립하면 정부가 2배를 지원해 18세까지 3200만원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 연령은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오른다. 첫만남 이용권, 산후 조리비,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비, 구군별 출산 지원금, 가정 양육수당 등도 지속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해 울산은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하동군

진주역 경유 시외버스 노선 운행

하동군이 8일부터 진주역을 거쳐가는 시외버스 신규 노선을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통은 군민과 관광객의 수도권 교통 접근성 및 KTX 연계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교통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늘어나는 수도권 철도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의 교통 복지 향상과 주요 관광지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노선은 평일·주말 상시 운행되며 수도권 상·하행 KTX 주요 시간대와 연계되도록 배차시간을 조정했다. 진주에서 하동 방향은 08:30, 13:40, 15:50에 3회, 하동에서 진주 방향은 11:40, 15:30, 16:30에 3회 등 1일 총 6회 운행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택시요금 4500원으로 인상

경북도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된 요금은 10일 자정부터 경북도 전역에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27일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최근 유튜브,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이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전북 농협, 지역기반 리더십 경영 강화

중앙회·은행 주요 본부장 인사
김성훈, 장길환, 이정환 임명

농협이 2026년 1월 1일자로 범농협 집행간부 및 중앙회·농협은행 주요 본부장 인사를 단행한다.

전북지역 조직개편의 핵심 축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농협은행 전북본부장·농협은행 부행장에 모두 전북 출신 간부들이 발탁되며 지역 현장 중심 경영 강화 의지가 읽힌다는 평가다.

김성훈(53) 신임 전북본부장은 김제 출신으로 1996년 농협중앙회 정주지점 서기로 입사한 뒤 지부·본부 핵심 보직을 거친 영업·조직관리 전문가다. 김제 지부, 공제보험기획부, 뉴욕 해외사무소 파견, 전북지역본부 차장 등 본부 경력을 갖췄고, 진안군지부장·공공금융부기관사업단장·고객행복센터장을 역임했다.

장길환(54) 신임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장수 출신으로 1998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본점 여신·경영혁신·데이터·지점 운영 등 실무와 전략 기능을 두루 경험했다. 여신상품팀장, 경영혁신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장길환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정환
농협은행
부행장

신TF반장, 중화산동지점장, 장수군지부장, 데이터사업부 차세대정보계추진국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아온 '기획·여신 전문가'로 꼽힌다.

이번 인사에서 전북 출신 간부 가운데 최고 요직으로 평가되는 농협은행 부행장에는 이정환(56) 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이 발탁됐다. 1995년 입사 이후 전주산단지점장, 무주군지부장, 여신심사부 단장, 기업개선팀장, CIB 심사부장 등 여신·기업금융 심사 핵심 라인에서 경력을 쌓았다. 2024년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을 거쳐 2025년 중앙회 전북본부장을 맡는 등 최근 2년간 지역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점이 승진 배경으로 거론된다.

/전북=김종일 기자 kji7219@

전남도, '농촌에서 살아가기' 우수사례 선정

남도전원한옥마을·별내리마을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진도 남도전원한옥마을이 우수상, 장성 별내리마을이 입상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는 매년 귀농귀촌 포털 '그린대로'에 등록된 농촌에서 살아가기 운영 마을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운영 방식, 참가자 활동 내역, 참가자 만족도, 귀농귀촌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99개 마을 중 7개 시·도에서 18개 마을이 참가했으며, 서면 심사를 통과한 10개 중 상위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한 결과 진도 임회면 남도전원한옥마을이 우수상, 장성 별내리마을이 입상으로 선정됐다.

진도 남도전원한옥마을은 2013년 조성돼 주민의 80%가 도시 출신 귀촌



농촌에서 살아가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선정된 남도전원한옥마을 전경. /전남도

자로 구성됐다. 13개 주택이 농어촌민박업소로 등록됐으며, 마을 이해 프로그램, 지역 특색을 살린 국악·영농 체험, 지역 축제·문화예술 행사 참여 등 활동으로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기수별로 군청 관계자와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안내와 정착 정보를 제공한 결과, 참여자 중 39%가 실제 전입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여 심사위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토론회' 열어

오는 17일 국회도서관서 진행

해남군은 오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해남·완도)경유'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해남 출신인 민홍철·

민병덕·민형배 의원과 완도 출신의 허종식·손명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해남군과 완도군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를 통한 분위기 확산으로 제5차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마련됐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완도군, 지방소멸대응기금평가 최고등급

전액 국비 120억 사업비 확보

완도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전액 국비 1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국가 중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다음 연도 사업비를 확정한다.

2026년도 기금 사업은 당초 2단계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우수(120억), S(88억), A(80억), B(72억) 등 4단계로 세분화하여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1차로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 중 1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로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8개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군은 확보한 120억원의 재원으로 '치유의 섬 완도' 프로젝트, 청년 공공임대 주택 건립 등 지방소멸 대응 전략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반시설사업 국비 252억 확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6년도 기반시설사업 국비로 2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130억원과 비교해 약 2배 규모로, 경제자유구역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비 확보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지역 교통망 정비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 부산항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 물동량 수송 효율화 등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면세산업, 구조적 위기 직면… 임대료 조정 등 상생 필요”

유통산업연구센터 세미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불황 지속
업계, 정부·공항공사 등 책임론 제기
기금 운용 투명성 제고·재투자 촉구

“면세점 산업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해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위기는 과거와 결이 다릅니다. ‘이 시기만 버티면 다시 매출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대한 메가 트렌드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면세산업이 엔데믹 이후에도 긴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일시적인 불황이 아닌,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붕괴의 전조로 진단했다.

유통산업연구센터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상품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면세산업의 시작과 오늘 그리고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구진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면세점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데이터를 통해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날 구 연구원은 ‘국내 면세점 현황과 특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구 연구



‘한국 면세산업의 시작과 오늘 그리고 미래’ 세미나에 참여한 토론자들. 왼쪽부터 인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 박문구 유통산업연구센터 대표이사, 커니 고병욱 상무, 구진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안혜진 시티면세점 대표, 유통연구센터 박창영 상임고문

/손종욱 기자

원은 “2024년 국내 면세점 매출은 14조 원 수준에 머물며 회복세가 둔화된 반면, 중국 면세점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급성장하며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했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엔데믹 이후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구 연구원은 “과거 단체 관광객 중심의 ‘쇼핑 관광’에서 개별 여행객(FIT) 중심의 ‘체험 관광’으로 트렌드가 급변했고, 해외 직구 활성화로 면세점의 독점적 가격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내 면세점 매출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 구조상, 시내 면세점의 부진은 곧 산업 전체의 쇠나을을 의

미한다.

면세점을 ‘황금알’로만 인식해 규제 일변도로 대응해온 정부와 공항공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은 “지난 24년간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가 10조 원이 넘는 다”며, 이는 제2터미널 건설 등 공항 인프라 확장의 핵심 재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 막대한 재원이 정작 위기에 빠진 면세 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재투자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태훈 경북공면세점 대표는 “특허 수수료의 95% 이상을 대기업이 내고 있는

데, 이 재원이 면세 산업 발전을 위해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산업 재투자율을 촉구했다.

유통산업연구센터 박창영 고문은 “면세점은 특혜 산업도, 세금을 안 내는 산업도 아니다”라며 “특허 수수료, 법인세, 공항 임대료 등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투명한 독과점 산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규제 강화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었다”고 지적했다.

업계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면세점 협회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안혜진 시티면세점 대표는 “협회 이사장 자리가 관세청 퇴직 관료들의 쉬어가는 낙하산 자리가 됐다”며 “1~2년 머물다 떠나는

CU “크리스마스, 미리 준비하세요”

홈파티용품 등 온·오프라인 기획전

편의점 CU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홈파티와 선물 수요를 겨냥한 대규모 기획전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CU는 자체 커머스 앱 포켓CU의 홈배송 서비스를 통해 크리스마스 트리 2종(180cm, 150cm)과 볼, 전구 등 다양한 장식품 약 30종을 선보인다.

올해는 프리미엄 선물 라인업을 강화했다. 지난 추석 완판을 기록했던 1캐럿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미니골드 귀걸이와 목걸이를 앵콜 판매하며, 어드벤처 캘린더와 모나미 153 ID 만년필 세트 등도 준비했다. 특히 영화 해리포터 속 케이크 모양의 키링 및 그림책 교통카드는



CU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대규모 기획전을 전개한다.

/CU

1000개 한정 수량으로, 일부는 이달 9일까지 포켓CU에서 선구매 가능하다.

CU 단독 케이크 라인업으로는 글로벌 IP 메타몽을 활용한 메타몽 블루베리 케이크와 꿀고구마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3종 등이 있다.

/손종욱 기자

GS25, ‘와인25플러스’ 전통주 매출 급증

중소 양조장 판로확대… 상생모델 자리

편의점 GS25를 통해 판로 확대를 하고 성장하는 중소 전통주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GS25는 올해(1~11월)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 ‘와인25플러스’의 전통주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중소 양조장에서 생산한 전통주 매출이 무려 5.4배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크게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25플러스는 전통주 큐레이션·유통 플랫폼 대동여주도와 협업해 중소 양

조장들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와인25플러스의 높은 접근성과 전국 단위 판매 채널을 통해 그동안 지역에 머물던 양조장 제품들이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전준영 GS25 와인25플러스 MD는 “와인25플러스는 전국 유통망과 큐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지역 양조장이 ‘로컬 브랜드’에서 ‘전국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며 “중소 양조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제품 테스트 기반 마련 등 전통주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백화점, 연매출 5조 돌파

K-패션 등 핵심 상품군 강화
잠실점 역대 최대 연매출 전망

롯데백화점이 ‘롯데타운 잠실’과 ‘롯데타운 명동’의 쌍끌이 성장에 힘입어 2년 연속 합산 연매출 5조원을 돌파했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이 지난 4월 2년 연속 누적 매출 3조원(거래액 기준)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1일 앞당긴 기록으로, 올해 연매출은 역대 최대인 3조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실점은 백화점, 에비뉴엘, 롯데월드몰 등 각 플랫폼의 강점을 극대화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롯데월드몰은 무신사·스탠다드스포트, 아르켓 등 신규 브랜드를 유지하고 400여 회의 팝업을 진행하며 트렌드를 선도했다. 에비뉴엘은 럭셔리 브랜드를 보강해 고급화에 집중했으며, 백화점 본관은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를 오픈하는 등 콘텐츠

다변화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으로 잠실점은 지난해 대비 신규 고객 수가 15% 이상 증가했고, 2030세대 및 우수고객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외국인 매출 또한 올해 11월까지 25% 신장했다.

본점은 지난 6일 연매출 2조원을 달성했다. 2019년 이후 최대 규모 리뉴얼을 통해 뷰티, 스포츠, 키즈, K패션 등 핵심 상품군을 새단장하며 강북 1위 점포의 저력을 과시했다. 특히 하이 주얼리와 고급 시계 상품군을 강화해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외국인 매출 연평균 성장률이 70%에 달하는 등 글로벌 고객 공략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롯데타운’은 롯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을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고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신세계백화점, 시코르 매장 확대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뷰티 편집숍 시코르가 명동과 홍대에 신규 매장을 잇달아 열고 외국인 관광객 공략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코르는 지난 5일 명동점을 오픈한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홍대점을 개장한다. 지난 7월 강남역 플래그십 스토어에 이어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핵심 상권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실제 시코르의 외국인 매출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K홍대점은 리뉴얼 이후 10월까지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했으며, 강남역점도 20% 이상 증가했다.

이번 신규 점포들은 총 230여개 브랜드를 선보인다. 티르티르, 정샘물, 달바 등 인기 K-브랜드뿐만 아니라 체리엑스, 라스키뷰티 등 인디 브랜드를 위한 인디 존도 마련했다.

/손종욱 기자

신제품



이마트24, 디저트 7종

이마트24가 카다이프, 말차, 타로 등 트렌디한 맛을 적용한 신규 디저트 7종(사진)을 출시하고 상품군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초코 카스테라 카다이프 모찌, 초코 카다이프 모찌, BOTD 말차품은 초코 쪽죽모찌빵, BOTD 타로품은 초코 쪽죽모찌빵, 서울대 빵 3종(말차·초코·딸기)이다.

이마트24는 출시를 기념해 이달 31일까지 행사카드로 디저트 상품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손종욱 기자

세븐일레븐

말차 RTD 컵음료 2종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꺼지지 않는 말차코어 열풍 속 진짜 말차가루가 들어간 RTD(Ready To Drink) 라떼 음료를 PB상품으로 선보였다.

세븐일레븐은 말차라떼를 가볍고 핸디한 RTD 컵음료로 즐겨볼 수 있는 ‘세븐셀렉트 말차딸기라떼’와 ‘세븐셀렉트 말차라떼’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말차라떼 시리즈 출시를 기념해 관련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2종 중 1종 구매 시 2+1 행사를 상시 진행하며 교차 선택도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직구플랫폼 다음 타깃 ‘외식업’… 중국 茶 브랜드 한국 상륙

Z세대 상권 중심 中 밀크티 확산
포화 내수 벗어나 韓서 시험 확대
위생·품질 강조해 신뢰확보 시도
中 외식 브랜드 국내 진입 본격화
시장 변화 속 자영업 경쟁 심화 전망

중국 브랜드의 한국 공략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직구 플랫폼(C-커머스)이 국내 소비 지형을 흔들어 놓은 데 이어 이제는음료 프랜차이즈까지 한국 시장에 본격 상륙하고 있다.

최근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중국 밀크티·차(Tea) 브랜드가 잇달아 매장을 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명동·건대·홍대 등 Z세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미 중국 브랜드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

중국 밀크티 강자인 ‘차백도’는 지난해 강남에 첫 해외 매장을 연 뒤 현재 국내 1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까지 영업 반경을 넓혔다. 내년까지 50개 점 확대가 목표다.

‘헤이티(HEYTEA)’는 2023년 3월 압구정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건대·명동·홍대·가로수길 등 핵심 상권에서 총 6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프리미엄 콘셉트를 내세우는 만큼 일부 매장은 청결



차백도 홈페이지 캡처.

상태를 매일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며 신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3월 한국 공식 SNS를 개설하며 진출을 예고한 ‘패왕차희(CHAGEE)’도 최근 한국 법인 ‘차치코리아’의 자본금을 1억원에서 13억원으로 확대했다. 국내 사업 확대를 위한 초기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건대입구에 문을 연 ‘아운티제니(AUNTEA JENNY)’도 중국 내에서 유명한 차 브랜드다. 상하이에서 출발한 브랜드로 중국 내 점유율 4위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임시 오픈을 통해 반

응을 테스트했고 11월 정식 오픈 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중국 브랜드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 내수 시장의 극심한 포화 때문이다. 차백도(약 8400개), 차희(약 6800개), 헤이티(약 4000개) 등 주요 브랜드의 중국 내 매장 수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데다 그밖에도 많은 브랜드가 경쟁에 뛰어들어 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소비자 반응 속도가 빠르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확장을 위한 ‘실험 무대’로 꼽힌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국 브랜드의 한국 진출은 외식업에 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로봇청소기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 ‘로보락’이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식품·음료 분야에서는 여전히 소비자 경계심이 높아 브랜드들이 ‘청결·품질관리’를 전면

에 내세우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과거 중국산 식품 위생 논란을 떠올리며 여전히 쉽게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초기에는 호기심으로 소비가 몰릴 수 있지만, 위생 관리와 품질 인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방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중국 브랜드들이 한국 규제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확장 속도도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C-커머스가 단기간에 시장을 뒤흔든 것처럼 중국 프랜차이즈 유입이 본격화하면 외식 산업 판도도 바뀔 수 있다”며 “식품 안전 검증 강화와 함께 국내 자영업자 보호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조아제약

고보습 크림 ‘손바렌’

각질·건조피부 완화 기대

조아제약이 건조성 피부질환 개선에 효과적인 일반의약품 ‘손바렌크림’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손바렌크림은 우레아 성분을 함유해 진행성 지장각피증(주부습진의 건조형), 손·발바닥 각피증, 어린선, 노인성 건피증, 모공성 태선, 아토피피부 등 다양한 건조성 피부질환 완화에 도움을 준다. 우레아는 천연보습인자의 구성 성분으로 피부 각질층 내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고 표피 각질을 용해해 피부 보습 및 각질 제거 효과를 갖췄다.

이번 신제품은 수분 보유력이 높고 끈적임이 적은 크림 제형을 처방한 것으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도 특징이다. 튜브형으로 제작돼 휴대와 보관도 쉽다.

조아제약관계자는 “손바렌크림은 스테로이드, 색소, 향료를 함유하지 않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K-제약바이오, 제조역량 강화위해 첨단기술 혁신 필요”

제약바이오협회, 제29호 정책보고서 자동화·디지털 전환 격차 해소 과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장 자동화와 고도화,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연속제조 공정,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적극 도입 등에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7일 창립 80주년 특별기획으로 ‘제조 혁신’ 필요성과 방향성을 다룬 제29호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특별기고를 통해 박영준 의약품제조혁신학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통적 배치 생산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 활용, 빅 데이터 구축, 로봇 기술 개발 등 디지털 전환 역량을 필수 성장 요소로 꼽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의 정윤 PL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제조·품질 혁신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특히 협회 회원사 가운데 45개 기업의 61개 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혁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사적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공장 운영의 디지털 인프라는 상당 수준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 규모에 따른 디지털 전환 수준의 격차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업들은 높은 설비 투자비용, 각종 시스템 간 연계의 어려움, 전문 인력 부족, 규제 불명확성 등을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개선 과제로는 단기적으로는 공장 자동화를 향상에 대한 투자 의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속제조 공정 및 의약품 품질 고도화(QbD)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구조 특성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 PL은 “제조·품질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중장기적 방향성과 우선 순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하고 제조·품질 혁신 투자활동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또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전문 인력을 체계

적으로 양성하는 등 민관 협력 및 우수 사례를 지속 창출해 산업 전반의 혁신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종근당 천안공장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 이연제약 충주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시사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제조 혁신을 위한 제조 실행 시스템(MES) 등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제조혁신 미래 방안과 관련해서는 L·G화학 생명과학본부 소진연 연구개발 부문장의 제약산업의 제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의약품 제조 혁신 전략, 이삼수 하나제약 사장의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품질분야 혁신을 위한 제언 등이 다뤄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일반의약품 ‘손바렌크림’

/조아제약

써브웨이

‘랍스터 접시’ 카드뮴 검출

제품군 안전기준 재정비

써브웨이는 최근 사은품으로 지급된 ‘랍스터 접시’에서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써브웨이는 “이번 사건으로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11월 24일 즉시 증정 중단 및 전량 회수가 결정되었다. 해당 제품을 소지한 고객에게도 빠르게 회수 안내에 대한 세부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써브웨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품질·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은품을 포함한 전 제품군 품질·안전 기준 재정비, 제조 공정 및 협력업체 관리 강화, 정기 샘플링 검사 확대, 외부 공인기관을 통한 검증 절차 강화, 사전 제품 검증 프로세스 고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원선 기자

한미약품, ‘비만 신약’ 식약처 신속심사 선정

최대 30% 체중감량 효과 입증

한미약품은 지난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비만 신약 후보물질 ‘에페글레나타이드’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신속 심사’ 제도는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의학적 개선 가능성이 현저한 혁신 국산 신약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데 중점을 뒀 심사 일정을 일반 심사 대비 약 25%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올해 안에 에페글레나타이드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발매는 오는 2026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이 독자 구축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GLP-1) 수용체 작용제다. 체중 감량, 혈당 조절, 심혈관 질환 관리 등 전반적인 대사 개선에 효능을 갖췄다. 지난 10월 공개된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 데이터에서는 최대 30%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됐다.

해당 임상은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특히 체질량지수(BMI) 30kg/㎡ 미만의 여성 환자에서 평균 12.20%의 체중 감소가 관찰됐고 최대 체중 감소는 30.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슈뢰더 前 독일총리 부부, 콜마그룹 방문

콜마홀딩스, 세종공장서 글로벌 협력

콜마홀딩스는 지난 2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前) 독일 총리 부부,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 등이 한국콜마·콜마비엔에이치 세종공장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세종공장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前) 총리와 부인인 김소연 슈뢰더-김 비영리재단 이사장은 운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함께 공장을 견학하며 신규 사업을 논의했다. 모하메드 알 호사니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DIO) 최고 책임자, 메이드 알 함마디 에미리트-한국 친선협회(EKFS) 회장, 레이먼드 셰플러 하이티(HITI) 대표도 동행해 콜마

그룹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 역량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운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사회공헌부문 각자대표와 환담을 나눴다. 운동한 회장은 슈뢰더 전(前) 총리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

김소연 이사장은 지난 2014년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 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한국 대표로 활동하며 월드클래스 300기업 협회장인 윤 회장과 협력했다. 김 이사장은 윤 회장이 독일 아헨공대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월드클래스 기업들이 독일 내 연구기관 및 기업과 교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청하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중진공, '정부혁신 왕중왕전' 행안부 장관상

7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3~5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중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중진공은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 디지털 정책금융 혁신사례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중진공 백정희 금융데이터실장(오른쪽)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SK바사, 아동·청소년과 '희망메이커 송년의 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3일 경기 판교 소재 본사에서 '2025 희망메이커 송년의 밤'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위해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SK가스, SK플라즈마 등 관계사들이 동참했다. 희망메이커는 진로 탐색, 학습 지원, 멘토링, 문화 체험 등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 올해는 약 300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타이어, 인도에 안전한 수자원 인프라 지원

한국타이어는 지난 5일 인도네시아 브카시군 스랑 바루 소재 나가 십타 마을에서 수자원 인프라 지원 사업인 '워터 펌프 설치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공장이 위치한 브카시 지역 사회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다.

/한국타이어



한일시멘트, 에너지 효율목표 제도 우수기업 인증

한일시멘트가 2년 연속 에너지 효율목표 제도(KEEP 30)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충북 단양공장에 이어 올해에는 강원도 영월공장이 인증을 추가로 획득했다. 한일시멘트 오해근 전무(오른쪽)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양광석 에너지안전효율과장과 인증식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시멘트



KB국민은행, 초록우산에 한아지원 기부금 1억 전달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초록우산에 저소득 가정 한아를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어린이 재단빌딩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신정원 초록우산 본부장과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오른쪽)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

美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서 삼성 아트TV 선봬

삼성전자, 전시존 마련
신진·기성작가 작품 제공

삼성전자는 미국마이애미 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에 전시존을 마련하고 삼성 아트 TV를 통해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아트 바젤의 공식 디스플레이 파트너로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아트 바젤 컬렉션을 비롯해 전 세계 유명 미술관과 예술가들의 작품 4000여 점을 4K 초고화질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 컬렉션은 지난 3일 삼성 아트 스토어



관람객들이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 삼성전자 전시존에서 Micro RGB, Neo QLED, 더 프레임 등 삼성 아트 TV를 감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에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한 컬렉션은 현대 미술계를 정의하는 문학적 풍부함과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현대 미술작가 24

명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이번 컬렉션은 ▲인스티투토 데 비시온 ▲쿠리만주토 ▲메리디스 로젠 갤러리 ▲나나 존슨 ▲베르멜로 ▲선

켈리 ▲찰리 제임스 갤러리와 같은 세계 유수의 갤러리 7곳에서 선보이는 신진 및 기성 작가의 작품을 아우른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이랜드재단, 천사박스 2008개 전달

전국 50여개 현장단체 제공
전년비 지원규모 2배 늘려

이랜드재단은 연말을 맞아 가정박 청소년·자립준비청년·이주배경청소년·고립은둔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미래세대를 위한 '천사박스' 2008개를 전국 50여 개 현장 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확대했을 뿐 아니라 최근 그룹의 물류센터 화재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눔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천사박스'는 이랜드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뚝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기 캠페인이다.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미래세대의 실질적 필요를 반영해 생활 위생용품, 방한용품, 간편식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구성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땡큐파머 클렌징폼·선로션 ▲지파운데이션 의류관리시트 ▲기빙플러스 방한장갑 ▲팬지 캐릭터 키링 등 후원사 물품과 함께 이랜드재단이 마련한 바디워시·샴푸·무릎담요·햇백·간편식(소고기무국·사골곰탕·설렁탕·크림스프) 등이 담겼다. 모든 물품은 중간 수수료나 운영비



이랜드글로벌R&D센터에서 천사박스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랜드재단

공제 없이 100%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특히 이번 나눔에는 이랜드그룹 임직원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정성을 더했다. 임직원들은 연말 연휴 준비로 분주한 시기였음에도 박스 포장과 응원 카드 제작에 동참해 따뜻한 연대의 의미를 실었다.

천사박스 전달식은 12월 4일 서울 강서구 이랜드글로벌R&D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랜드재단 이윤정 본부장을 비롯해 이랜드팜앤푸드 이제학 본부장, 땡큐파머 김문준 부장, 기빙플러스 김영을 본부장, 지파운데이션 박희정 팀장 등 협력사 관계자와 현장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스타벅스, 지역사회에 최대 5억 기금 전달

'캐리 더 메리' 행사 진행

스타벅스가 연말을 맞아 연중 최대 규모의 기부 행사를 펼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장의 수익금 중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최대 5억원의 기부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캐리 더 메리(CARRY the MERRY)'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캐리 더 메리'는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네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연말 시즌에 진행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기부 행사로, 고객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성되는 기금 나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5년간 '캐리 더 메리'를 통해 스타벅스가 전달한 누적 기금은 약 25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12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전국 스타벅스에서 진행하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선보인 '월리 체리



스타벅스가 오는 25일까지 고객과 함께 최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기부 행사 '캐리 더 메리'를 전개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푸딩 크림 프라푸치노' 혹은 '월리 레드벨벳 치즈케이크'를 구매 시 품목당 1000원이 기금으로 자동 적립된다.

이같이 마련된 '캐리 더 메리' 기금은 자원순환사회연대, 제주올레, 아름다운가게, 환경재단, 한마음혈액원, 서울YW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 12곳 등 총 30여 개의 NGO 기관으로 전달돼 한부모 조손가정 영양지원 사업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코웨이 블루휠스, 휠체어농구리그 우승

2년 연속 그랜드슬램 달성

코웨이의 휠체어농구단 코웨이 블루휠스가 '2025 KWBL 휠체어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하며 올 시즌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7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7일 개막한 2025 KWBL 휠체어농구리그에는 서울 연고의 코웨이 블루휠스를 비롯해 고양홀트, 춘천타이거즈,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6개 팀이 참가했다. 코웨이 블루휠스는 10월 정규리그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확정 지으며 챔피언전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부음

▲장남기씨 별세, 장세철(디지털이펙트 대표)·세찬(전 SK네트웍스 PR전문위원)씨 부친상 = 7일, 경북 안동시 용상안동병원 장례식장 3분향실,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054-820-1498

▲강창규씨 별세, 김성진(머니투데이방송 콘텐츠총괄부장)씨 장인상 = 6일 이후,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8일 오후 1시 30분. 02-792-6232

20개월 이상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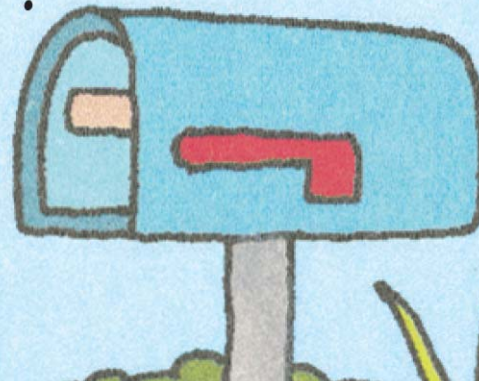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 20만 관객 증명!
기발한 상상력의 이머시브 뮤지컬

뮤지컬

100

총짜리 집

우와~ 여기엔
누가 살고 있을까?
올라가 보자!



©Toshio IWAI/ KAISEI-SHA

2026.01.09(금) ~ 03.02(월)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 대극장

신탁사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제한의 기준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익자 이익의 수호 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32조 본문, 제33조, 제43조 제1항).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위반해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과실로 확대된 비용이므로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수탁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개발신탁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또한 함께 고려’ 해오고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신탁보수약정이 있는 경우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탁사무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사무처리의 내용 및 경과, 신탁기간, 중단된 신탁사무로 인해 발생하는 위탁자의 손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등 참조).

최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보수청구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甲은 乙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했고, 호텔준공 후 신탁사업 종료합의를 하면서 최종 수지계산서에 승인했다. 그런데 갑이 을 상대로 ‘수익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갑은 “을이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부당하게 사업비를 지출했으므로, 부당 집행 사업비 상당액을 신탁계약 비용에 포함할 수 없으니, 갑에게 상당액을 신탁비용에서 제외하고 재산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갑은 ‘신탁보수 감액 청구’도 했는데, 을이 선관주

의의무를 위반했으니, 신탁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 반해 신탁보수의 10% 상당액이 감액돼야 한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가합897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나202194 판결). 을이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해 부당하게 분양관련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갑은 기존의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새로운 분양대행업체가 선정되기까지 약 3개월간 분양업무가 불가능했음에도, 을이 위 기간 동안 분양업무 관련 사업비를 지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당한 사업비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 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 분양대행업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약정했고, 기존 분양대행업체가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공백기간 동안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 사업비를 부당 집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바른

현대차, 자율주행 자체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공격적으로 공개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존재감은 여전히 흐릿하기만 하다.

테슬라는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한국시장에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기술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전대 하단의 레버를 당기면 완전자율주행을 시작한다.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거나 가속페달에 발을 올릴 필요없이 전반만 주시하면 차량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해간다.

테슬라 FSD는 감독형과 비감독형 두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감독형 서비

스를 상용화했지만 조만간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해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이어가는 비감독형 서비스 상용화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GM은 ‘핸즈프리(손이 필요 없는)’ 운전 보조 시스템인 ‘슈퍼크루즈’를 국내 출시했다. 지난 2017년 북미에서 상용화한 기술로 중국에 이어 3번째로 우리나라에 선보였다.

이처럼 글로벌 업체들이 완전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의 기술은 여전히 자율주행 레벨2(부분 자율주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현대차그룹의 미래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총괄해 온 송창현 AVP본부장(사장)이 최근 회사를 떠나면서 그룹의 자율주행차 전략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빠르게 미래 전략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업체의 자율주행 시장 경쟁을 보면 과거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전자업체들의 경쟁 구도를 연상케한다. 당시 애플과 삼성, 모토로라 등 다양한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현재는 애플과 삼성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애플은 자체 설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최적의 효율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확보했다.

현대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애플과 같은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드웨어 생산에 소프트웨어까지 확보해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자율주행 상용화에 돌입한 경쟁사들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를 찾아 추가 투자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정부도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등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8일 (음 10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수확. 48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처리. 60년생 내 행동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 72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84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없다.



37년생 시시비비가 어느 경우인가 확인해보고 일처리를. 49년생 지금 이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61년생 올바른 길 안내가 구슬수를 예방한다. 73년생 오랜 기다림 끝에 좋은 소식 온다. 85년생 리더십의 본질은 술선수범이다.



38년생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 50년생 유혹이 많으니 중심을 잡자. 62년생 피곤하니 휴식이 필요하다. 74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86년생 만나느라 즐거움보다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 기쁨.



39년생 흉당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51년생 온종일 복잡하니 시간표를 메모. 63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기는 하지 말도록. 75년생 과거 이어온 신용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87년생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40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보는 것도 좋다. 52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지출을 신중히. 6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할 것. 76년생 몸은 힘들어도 보답은 받는 오후. 88년생 모르는 사람과 같듯이 생기니 주의.



41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53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오후에 낭패를 본다. 65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을 조심. 77년생 형살이 있으니 종일 운전주의를 요함. 89년생 소문난 잔치에 가 봐도 별 볼 일이 없다.



42년생 행동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54년생 사소한 실수로 그동안 공들였던 일이 위기이다. 66년생 마음 가는 아성이 있다면 대화해보라. 78년생 하찮은 걱정은 접어 두라. 90년생 고쳐 쓰기 힘든 것은 빨리 버려라.



43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55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종일 마음이 불편. 67년생 안부를 묻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79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91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준다.



44년생 행복을 남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자. 56년생 창업은 준비를 하고 실행해야 한다. 68년생 붉은 카펫 위를 걷는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 80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는데. 92년생 가까이 있다고 소홀히 대하지 마라.



45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예술에서 결정. 57년생 아들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반짝인다는 것을 명심. 69년생 일이 하기 싫으니 변명만 느다. 81년생 추위가 닥쳐오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93년생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자.



46년생 앞만 보고 달리면 주변을 볼 수 없다. 58년생 겹질을 깨뜨려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70년생 부족한 시간이니 남을 미워 마라. 82년생 시시비비(是非非非)보다는 양보해보는 것도 인생사. 94년생 돈은 쓰라고 버는 것 아닌가.



47년생 자식이 인연을 만나니 할 일을 다 한 듯. 59년생 마음이 우울하지만, 영암은 잘되어 감사한 하루. 71년생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83년생 우는 아이는 우선 달래야. 95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니 자제.

김상회의四季

욕금고종 전략

병법 36계 중 16계인 욕금고종은 무언가를 잡으려면 오히려 놓아주라는 역설의 전략이다. 상대방을 베풀 끝까지 몰아붙이는 대신, 일부러 탈출구를 열어주어 스스로 안심하게 만들고 통제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삶 속에서 무언가를 잡고자 할 때 이 전략은 힘으로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관계와 기회를 자신의 의도대로 이끄는 지혜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명리학에서 말하는 운의 변화가 극심한 시기에 위험을 회피하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은 끊임없이 재물 명에 성취 인정 사랑을 잡기 원한다. 명리학은 잡으려는 마음을 줄이고 자연의 순환에 맡길 때 비로소 운의 흐름이 열린다. 전략적으로 운세를 보면서 완급을 조절하라는 말이다.

욕금고종 전략처럼 좋은 운세가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지혜인 것이다. 명리학에서 욕금고종 전략은 주로 재성과 관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다루는 방식과 연결된다. 재성이 너무 강하거나 재운이 급격히 들어올 때 모든 재물을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탐욕으로 인한 파탄을 부른다. 그런 시기에는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거나 기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다. 놓아줌으로써 재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명예나 지위를 얻는 것도 비슷하다. 경쟁적으로 탈취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역량과 인품을 갖추고 인연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하면 명예나 지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런 전략은 급격한 변화나 경쟁이 예상되는 운세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유용하다. 원하는 계약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먼저 양보를 한다. 잡으려면 놓아야 한다는 순환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0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1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3	5	7				4
			8		2			
								8
	9						6	5
7								2
6	2						3	
4								
			7		3			
2				5	4	1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열대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1	7	9	9	6	8	2
9	7	2	8	6	2	9	8	1
8	9	6	8	1	2	9	2	7
1	8	2	9	8	6	7	2	9
2	6	8	9	8	7	1	9	2
9	9	7	2	2	1	8	6	8
8	2	9	1	9	8	2	7	6
6	1	8	2	7	8	2	9	9
7	2	9	6	2	9	8	1	8

2	2	8	9	8	1	7	9	6
9	8	6	2	8	7	9	1	2
1	7	9	6	9	2	8	2	8
2	6	9	7	1	9	8	2	8
9	2	8	8	2	9	6	7	1
8	1	7	8	2	6	9	9	2
8	8	2	9	9	2	1	6	7
6	9	2	1	7	8	2	8	9
7	9	1	2	6	8	2	8	9

수시 탈락 늘고, 사탐 쏠림까지 인문계 정시경쟁 더 치열해진다

주요대 인문계 수시탈락 1.5만건▲
사탐 고득점 급증 등 정시경쟁 가중
자연계, 수시탈락 감소 등 경쟁 완화
2027학년도 재수생 증가 가능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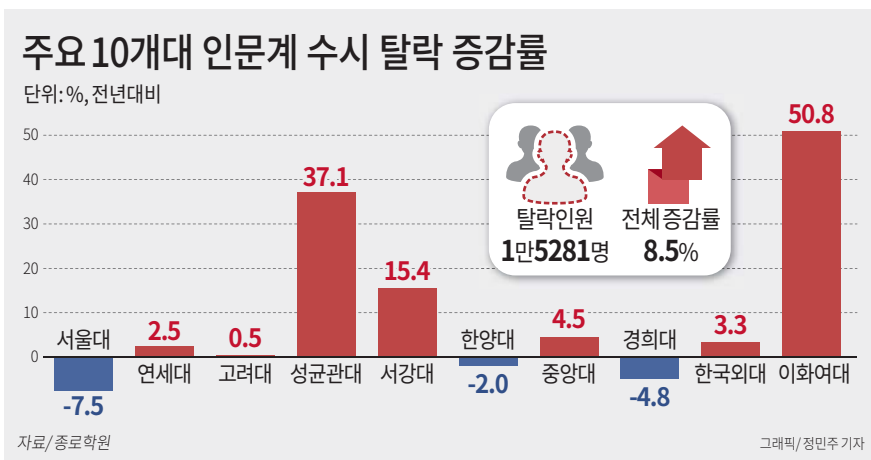
2026학년도 주요 대학 정시 경쟁이 지난해보다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포함한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의 수시 탈락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시에서의 경쟁 부담이 가중되는 흐름이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의 수시 지원 건수 기준 탈락 규모는 19만4238건으로 전년 대비 1만5281건(8.5%) 증가했다. 수시 선발인원은 9305명이었으나 지원은 20만3543건에 달해 탈락 규모가 확대됐다.

세부 대학별로는 양상이 엇갈렸다. 서울대는 탈락 규모가 4226건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지만, 고려대는 2만202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중앙대가 2만7320건으로 4.5% 증가한 반면, 경희대는 2만3981건으로 4.8% 감소해 대학별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외대는 2만1774건으로 693건 증가하며 전체적인 증가 흐름에 힘을 보탰다.

이같은 인문계 탈락 규모 증가에 더해, ▲사탐 고득점자 급증 ▲확률과 통계 선택자 증가 등이 중첩되며 정시 경쟁을 압박하는 구도라고 종로학원은 설명했다.

반면 자연계는 탈락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2026학년도 주요



10개 대학 자연계 수시 모집인원은 8591명, 지원은 20만4654건이었으며 이중 탈락 건수는 19만6063건으로 전년 대비 6924건(3.4%) 감소했다. 자연계 고득점자 감소, 수능 응시자수 감소, 의대 모집정원 축소 가능성 등이 정시 경쟁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채점 결과에서도 인문계 경쟁 심화를 뒷받침하는 지표가 확인됐다. 사탐 응시생 중 2등급 이내 인원은 7만9611명으로 과탐(3만7308명)의 2.1배에 달했다. 사람이 지난해보다 4만2303명 크게 증가한 반면, 과탐은 크게 줄어 수능 구조가 인문계 쏠림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다.

수학 선택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두드러진다.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26만4355명으로 전년 대비 6만2089명(30.7%) 증가해 2022학년도 통합수능 이후 최대 비중(56.1%)을 기록했다. 반면 미적분은 전년 대비 3만3837명(14.9%) 감소한 19만3395명, 기하는 1만3624명으로 111명

(0.8%) 줄어들었다.

수시 탈락 증가와 수능 채점 결과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주요 대학 정시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불리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변환표준점수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어·영어의 불수능 영향까지 겹쳐 신중한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는 게 종로학원 설명이다.

이 같은 구조는 2027학년도 재수생 증가 가능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27학년도가 현행 대입제도의 마지막 적용 연도이며,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모집정원 변동 이슈까지 겹칠 경우, 재대전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수시 탈락 규모가 전반적으로 늘어 정시 경쟁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계열별 구조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히 인문계는 탐구 변환점수와 국어·영어·수학 난이도 등 변수를 면밀히 확인해 신중한 정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설명회·상담 등 정시대비 지원

수능 응시자 증가, 사탐런 변수 등
커진 입시 불안에 종합 지원 나서
설명회·상담 운영, 진학자료 배포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대비를 위해 ‘대입 정시 설명회’, ‘1대1 특별진학 상담센터’ 운영, ‘정시 자료집 및 대입 강의 영상’ 제공, ‘쎈(SEN)진학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 학생·학부모·교원을 위한 다양한 진학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정시모집은 수능 응시자 증가, 과목 난이도 변화, 이공계 지원자의 사회탐구 선택 확대에 인한 ‘사탐런’, 의대 정원 원복 등 변수가 겹치며 입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담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공신력 있는 정시 대비 지원이 수험생·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시 설명회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13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2025 대입 정시모집 결과 및 2026 수능 결과 분석 ▲2026 정시모집 특징 및 지원 전략 등 핵심 강의 2개가 제공되며, 강의는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가 맡는다. 참가 신청은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접수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12월 18일까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유튜브 ‘서울교육 썸TV’를 통해 강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지역 수험생(졸업생 포함)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1 특별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광진구청과 영등포구에 설치된 상담센터에서 총 1530건의 맞춤형 상담이 제공되며, 인문·자연·의학·미술·체

육·특성화고·전문대 등 계열별 전문 부스가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기회균형 전형은 15일 9시부터, 일반전형은 12월 16일 9시부터 상담 예약 사이트를 통해 접수되며 12월 21일 23시에 마감된다.

상담은 매년 95%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할 만큼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원단 소속 전문 교사가 진행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학교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쎈(SEN)진학 2026 정시모집 진학지도 자료집(5종)’ ▲‘2026 정시 대비 진학지도 동영상(10편)’을 제작해 배포했다.

자료집은 지난 1일까지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배포됐으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파일도 공개해 학생·학부모·교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영상도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유튜브 ‘서울교육 썸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오세훈 시장, 하노이에 한강개발 경험 공유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 참석
하노이 홍강 개발에 한강 노하우 공유

아시아 출장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서 하노이시가 추진 중인 홍강 개발과 디지털 행정 전환과 관련해 한강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또 하노이대학교를 찾아 한국어학과 등 현지 대학생 400여 명에게 서울시 정책과 유학 제도를 소개하며 우수 인재 유치에도 나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오 시장은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한강 수변공간 개발, 서울형 디지털 전환 정책을 공유하며 양 도시 간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 지도부, 홍강 개발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1970년대 치수(治水) 중심에서 친수(親水)로 정책을 전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미래형 수변 정책

‘그레이트 한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수변 개발 과정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한강 개발을 도시 성장의 동력이자 도시경쟁력의 핵심으로 전환한 서울의 정책적 경험에 관심이 집중됐다.

교통·환경·안전 등 서울이 축적한 빅데이터와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해 온 디지털도시 운영 노하우도 소개됐다. 시는 공공 무료 와이파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후동행카드, 손목다터9988 등 사례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를 높여온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하노이시가 추진 중인 홍강 일대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에 서울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성과를 지속 공유하고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오후 5시 30분(현지시각) 오 시장은 부다이 탕(Vu Dai Thang) 신임 하노이 인민위원장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앞서 포럼에서 공유한 우수 정책을 중심으로 양 도시 간 전략적 협력 및 공동 번영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국비 6.4조 확보… 10.3% 증가

(올해 대비)

역대 최대규모… 인프라 확충 등 투입

인천광역시가 2026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총 6조 473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6038억 원(10.3%) 증가한 규모로, 인천시가 국비 6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확보한 국비는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 친환경 정책, 미래산업 육성, 복지 지원 등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과 시민 생활 향상을 모색하는 핵심 사업에 투입된다.

주요 반영 사업은 ▲GTX-B 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1405억 원 ▲인천발 KTX 1142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161억 원 등 대규모 교통·기반시설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91억 원 ▲수소차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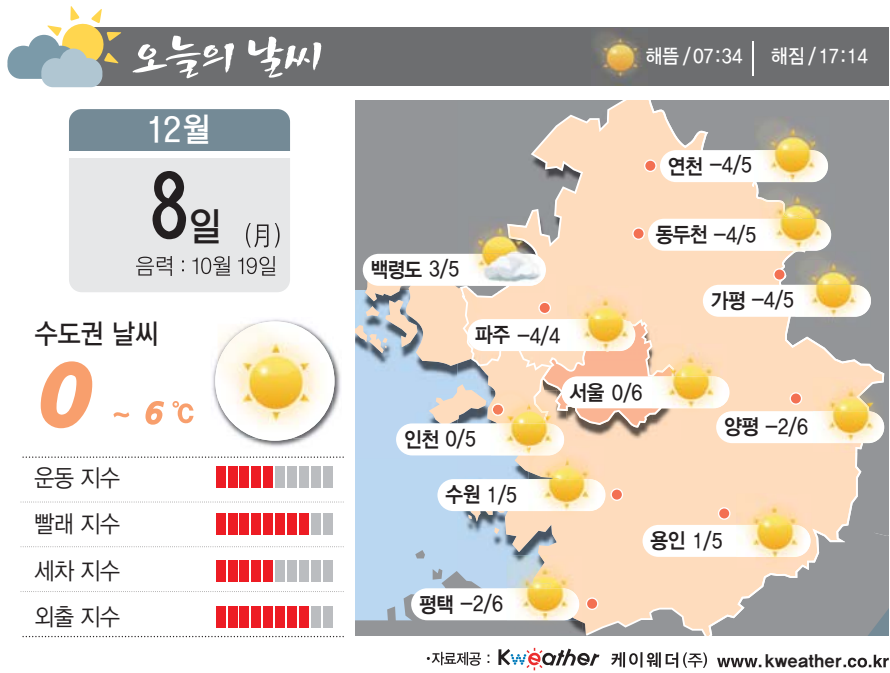
878억 원 등 친환경 전환 사업도 대폭 확대됐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 1209억 원 등 일자리 분야 지원도 강화됐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1월 국비 확보 기본계획 수립 후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를 수십 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예산 증액에 대응했다.

그 결과, 국회 심사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25억)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7.5억) ▲강화 고려 박물관 타당성 용역(5억)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16.2억) 등 총 108억 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유 시장은 “확보된 국비가 시민 행복과 인천 미래 성장에 직결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구글 美 검색어 2위 ‘케데한’…K콘텐츠가 트렌드 집어삼켰다 /사진 뉴시스
▲스페이스X 주식 매각설에…머스크 “정기 자사주 매입”

▲세계 억만장자 3000명 눈앞…한국은 7명 줄어 31명
▲우크라, 러 핵심 물류기업 사이버 공격…“165TB 삭제”

▲홍콩 30년 막 밟고 다닌 디딤돌, 알고보니 2억 년 된 공룡 발자국
▲독일 외무장관 8~9일 방중…경제·안보 현안 논의 전망



유통산업연구센터
면세산업 세미나
“구조적 위기 직면”
L1



Life

헤이티·차백도 등
중국차 브랜드
한국 공략
L2



“와인, 술 아닌 문화… 이탈리아 와인 문턱 낮춰 대중화 앞장”

인터뷰 | 박철환 비노월드와이드 대표

“많은 이들이 아직도 격식, 장소, 가격 등 와인을 접하기 어려운 장벽들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들의 이런 선입관을 깨고 언제든지 사기 좋고, 마시기 좋은 와인을 많이 발굴해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박철환 비노월드와이드(Vino Worldwide) 대표는 어렵다는 편견과 오해가 많은 와인을 금세 편안한 대상으로 다가가게 한다. ‘이탈리아 와인 전도사’란 타이틀이 괜히 붙은 게 아니다. 박 대표가 이끄는 와인 수입 전문 기업 비노월드와이드는 2022년 10월 설립돼 이탈리아 와인만을 수입, 유통하며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 진심을 담은 보첼리 와인

보첼리1831, 일 팔라지오 바이 스텐, 빈디 세르가르디, 쿠르타쉬, 빅시오, 일 팔라조, 보에리, 반토로쑈… 그는 지금까지 이탈리아산 10개 브랜드에서 130여종의 와인을 국내 수입·공급하고 있다. 이들 와인은 모두 비노월드와이드를 통해서만 맛볼 수 있다. 최고의 맛을 찾기 위해 매년 7, 8차례 폴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돌며 와이너리를 보고, 때론 와인 경매 행사에도 참여한다. 그래야 최고의 이탈리아 맛을 소비자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와인은 그의 ‘인생 시나리오’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공연 기획자였다. 공연 일도 보람 있지만, 마음 한편은 늘 허전했다. 그의 허전함을 채워준 게 와인이었다. 클래식과 팝을 넘나들며

공연기획자로 보첼리 공연 기획 중 와이너리 알게 되며 독점계약까지 현재 130여종 와인 국내 수입·공급 이탈리아 와인 알리는 ‘전도사’로

감미로운 보이스로 감성을 자극하는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내한 공연이 계기였다. 박 대표는 그와 공연 계약을 마친 뒤 “공연 외에도 시너지를 낼 비즈니스가 있을까” 고민하며 보첼리를 공부하던 중 그의 가문이 200년 넘게 토스카나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독점 계약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인간적인 매력도 그를 보첼리 와인에 빠져들게 했다. 맑고 청아한 음식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



박철환 비노월드와이드 대표.

/비노월드와이드

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음악에 대한 꿈을 향해 달려온 삶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음악인이다.

“나의 인생은 그동안 허와 같았다. 나는 허처럼 항상 움직이며 부지런히 새로운 것을 갈망해 왔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허처럼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채울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운명이었던 걸까. 내가 찾은 길은 와인이었다.”

와인 얘기를 하는 내내 그의 눈빛은 반짝거렸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늦게 등장했지만, 가장 오래갈 ‘친구’ 이야기니까.

◆와인은 ‘꿈꿔 왔던 이상적인 삶’

한때 세상을 떠돌썩하게 한 ‘파리의 심판 재대결’, ‘블라인드 테이스팅(Blind Tasting)’으로 와인 맛을 판정한 결과는 충격이었다. 캘리포니아산이 프랑스산을 누르고 1위부터 5위까지 휩쓸었던 것이다.

박 대표의 해석은 좀 다르다. 와인의 선택 과정에도 명품(名品) 선호와 유사한 사회·문화적 현상이 깔려 있다는 것. 사람들이 값비싼 브랜드 제품을 살 때 품질뿐 아니라 그 브랜드가 지닌 전통과 인지도, 주변의 시선까지 고려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가 이탈리아 와인을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양성은 이탈리아 와인의 또 다른 매력이다. 토착종만 500여 종에 달한다.

그는 “성격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맛이 들어감을 말하는데 같은 품종 포도의 와인이라도 포도밭 조건에 따라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면서 “햇빛의 조사(照射) 각도, 포도밭의 방향과 고도, 토양, 주변의 미세 기후 등에서 이탈리아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했다. 실제 ‘세계 1위 와인 생산국’은 이탈리아다. 세계 와인의 약 20%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탈리아 와인에 대한 애정은 음식과 연결하는 데 있어서 더 확대된다. 프랑스 와인은 저마다 개성이 강하지만, 이탈리아 와인은 음식과 무난하게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박 대표는 와인을 고를 때 누구보다 깐깐하다. 첫째가 독점이다. 가격으로 승부하면 대기업에 밀리고, 맛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가 검증된 와인이다. 국제 평론가 어워즈에서 일정 수준 이상 성적이 기준이다. 비노월드와이드가 수입하는 블랙라벨 와인 전 품목은 비비노 평점 4.2 이상, 디켄터 평점 4.2 이상, 로버트 파커(RP) 포인트 93점 이상, 제임스 서클링(JS) 포인트 93점 이상 중 최소 한 가지 이상 공식 평가를 받은 와인들이다.

이탈리아 와인, 음식과 조화 뛰어났다
토착품종 500여개… 다양성 강점
독점수입, 검증된 와인만 선택해

공연·전시 등 문화 콘텐츠와 결합
OTT 제작해 이탈리아 와인 알릴 것

◆와인도 사업도 ‘균형’에서

그는 어떤 와인을 좋아할까. 그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알코올은 12.5도에서 13도 사이, 미디엄 바디 안에서 균형감이 있고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와인이라고 말한다.

“나에게 다가오면서도 거리감을 유지하는 와인이 좋아요. 가벼움이 있으면서 무게감도 없고, 산도와 탄닌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지만 균형감이 있어야 하죠. 레드 와인으로 말하면 산도, 탄닌, 알코올, 둥근 맛(물을 마실 때와 꿀물을 마실 때 휘감는 느낌의 차이로 이해하면 된다. 영어로는 ‘round’로 표현) 등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걸 말해요. 제일 좋은 와인은 세월이 다듬어 준 균형이 아닐까 싶어요. 세월이 정제한 것, 세월 안에 드러나는 것이요. 와인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예기치 않은 놀라움을 안겨 주거든요.”

박 대표는 사업도 균형을 찾고자 한다. 그가 찾은 답은 ‘문화’ ‘스포츠’다.

비노월드와이드의 독특한 유통 모델도 문화에서 찾았다. 공연·전시 등 문화 콘텐츠와 와인 유통을 결합했다. 세종문화회관·롯데콘서트홀 등과 같은 곳에서 공연 전 시음 팝업을 열고, 공연 관람객이 즉석에서 경험 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의 실험은 성공했다. 일반 매장보다 달리 공연장에서는 30만원대 이상의 고가 와인이 박스 단위로 나갔다. 감동의 순간이 와인의 가격·선호까지 바꿨다는 얘기다.

스포츠를 통해서도 비노월드와이드의 이탈리아 와인을 알리고 있다. 비노월드와이드는 지난 10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파트너로 참여해 미식과 예술,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경험을 제공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박 대표의 더 큰 꿈은 드라마 제작이다. 이탈리아 와이너리의 역사·토양·가문의 이야기를 담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와인의 대중화가 느린 데는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가 없어서죠. 이탈리아 와인은 정말 복잡한데 제대로 알려주는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OTT 드라마를 만들어 볼 겁니다.”

박 대표의 목표는 명료하지만 확실하다. 소비자가 “이탈리아 와인은 비노월드와이드에서 고르면 실수 없다”고 믿는 것, 그리고 “와인은 술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함께 자리 잡는 일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1 안드레아 보첼리와 만남. 2 이탈리아 와이너리. 3 이탈리아 와인 론칭.

메트로 한줄뉴스



▲이강인 64분 뒀 PSG, 렌 5-0 완파…선두와 승점 1점 차
▲한국 탁구, 중국에 3-8로 져 혼성단체 월드컵 결승행 좌절

/사진 뉴스스

▲‘양민혁 선발’ 포츠머스 경기, 12분 만에 중단…관중 사망
▲이동 부담 덜었지만…‘북중미 A조’ 홍명보호, 고지대 적응 관건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밴쿠버 3-1 꺾고 사상 첫 MLS컵 우승
▲남자 하키, 방글라데시에 패배…중국과 주니어 월드컵 19-20위전